

상장사 회계법인 50곳으로 제한 검토

文대통령 '회계투명성 강화·지정감사제 확대' 공약 구체화
품질관리 인력 확보 등 기준 충족 전체 165곳 중 30% 수준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금융위원장 선임때 다시 논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인 50여 개로 제한되는 안이 검토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 기준인 품질관리 인력 확보, 사후 심리 체계 구비 등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전체 회계법인 165개(2017년 3월 기준)의 30%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장사 감사하는 회계법인인 회계사 20명당 1명의 품질관리 인력을 확보하는 안이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다. 품질관

리 인력은 회계사의 감사 품질을 점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해당 인력은 기업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관리직이다. 이 때문에 회계사 20명이 벌어들이는 매출이 1명의 관리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구성원이 20명 이상인 회계법인인 79곳이다. 전체 회계법인 165개의 48%에 해당한다. 이 중 20명 인력을 유지하는 곳을 제외하면 50여 개 회계법인인 상장사 감사

인 등록 기준을 만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는 70여 개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고 있다.

이밖에 회계법인의 자금통합 관리·수익배분·독립적 정보 취합 여부도 감사인 등록제의 주요 기준이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4월 지정감사제 확대, 감사인 등록제를 골자로 발표한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은 5월 1일 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을 통한 의원입법 형태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발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다. 여당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새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여당 안과의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최윤열 위원(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김종석 위원의 발의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때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24조에 따르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만 갖춘 회계법인을 설립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석 회계사 사태 이후 회계법인의 감사 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회계 투명성 강화, 지정감사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최재혁·정수천 기자 freshphase@



코스피가 7.63포인트 오른 2319.37로 출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눈높이 올린 코스피 “이젠 2600”

연기금 등 기관 매수세 힘입어 이틀연속 사상 최고치

오늘도 상승 출발 2320 넘파

한국증시의 2300선 시대가 개막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바통 터치로 삼성전자 등 대형주 위주의 강세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22면

2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71포인트(0.33%) 오른 2311.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급등세를 보이다 장중 2326.57까지 올라 10일(2323.22) 이후 9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22일 종가 기준 역대 처음으로 2300선 고지를 돌파한 후 2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다. 다음 날인 24일에도 오전 9시 37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6.61포인트(0.29%) 오른 2318.35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등세의 일등공신은 단연 기관이다. 기관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하루 새 2813억 원어치나 순매수했다. 이는 5년 9개월 전인 2011년 8월 19일(5057억 원)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최근 매집 물량을 늘린 국가 자자재(1077억 원)의 차이 실

현에도 연기금(3394억 원)이 압도적 매수세를 나타냈다.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2621억 원, 54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거나 대세적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연기금의 코스피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전략도 눈에 띈다. 연기금이 지난 4월 23일 이후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ODEX200ETF(상장지수펀드)로 187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증권업계에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스피 대세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해외 투자은행(IB) 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스피 목표지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해 오고 있다. 실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와 노무라, 씨티, 크레디트 스위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ofAM) 등 5개사는 최근 코스피 목표지수를 2600포인트까지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한국 증시 부흥 기대감이 크다. 한화투자증권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의 2300대에서 25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미니 인수위’ 국정기획위, 오늘부터 업무보고

김진표 “추경부터 신속하게”

(국정기획위원장)

정부조직 최소화 등 개편 주목
‘골든 트라이앵글’ 로드맵 논의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에 띠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22개 주요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2016년 공약과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 트라이앵글)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의 구체적 로드맵이 논의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4면

특히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용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의 첫 단추를 기재부부터 꿰는 것도 이 같은 신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경제1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빨리 위기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 속히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도 기

재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잡은 것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시급한 문제가 있다. 또 예산 관련 심의는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하고 (각 분과위원회) 프로젝트를 조율해줘야 제대로 된 예산안 편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교육 등 다른 부처들도 이런 삼각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안도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큰 개편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와 분석,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안)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인사청문회장 들어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대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이관 기자 photoeran@

옛 외환銀 본점 인수전 ‘롯데 對 부영’ 압축

자산운용사 등 예비입찰 참여
인수가 7000억~8000억 써내
도심에 90층까지 재건축 매력

롯데그룹과 부영그룹이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옛 외환은행 본점) 인수 우려 후보로 떠올랐다. 이들의 인수 의지가 강한 데다 하나금융 측이 재무적투자자(FI)보다는 대지를 직접 활용하려는 전략적투자자(SI)에 매각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일 마감한 KEB하나은행 본점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 중 인수가격으로 1조 원 이상

을 써낸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7000억~8000억 원대를 인수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코람코자산신탁과 함께 예비입찰에 참여했다. 부영그룹은 단독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 전문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캡스톤자산운용 등이 예비입찰에 인수희망서(LOI)를 냈다.

이들 중 주목되는 곳은 롯데그룹과 부영그룹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해당 부지의 인수를 검토했다. 기존 KEB하나은행 본점 건물을 사용하기보다는 허문 뒤 신축하는 것이 롯데그룹의 계획이다.

KEB하나은행 본점은 오피스 빌딩뿐 아니라 리테일, 호텔, 주거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곳의 허용 용적률은 800%이지만 현재 용적률은 436%인 것을 고려하면 90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롯데가 잠실에 롯데타운을 건설한 것처럼 을지로 부근에도 비슷한 상업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롯데그룹 본점은 이곳과 길 하나 사이를 둔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해 있다.

다만 아직 매각 초기 단계인 만큼 결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자산운용사 대부분은 해외 투자자를 파트너로 확보했다. 이들이 경쟁 과정에서 인수 제시 가격을 크게 높이면 국내 대기업을 제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KEB하나은행 본점은 공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사.

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금융 측에서 보장하고 있어 오피스 투자,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매각되는 KEB하나은행 본사는 지하 3층~지상 24층, 연면적 7만4834㎡ 규모다. 대지는 1만1742㎡로 을지로와 명동 일대 업무용 빌딩 중 가장 크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非정규직 제로化 사회 韓·日 정부 ‘같은 고민’

정규직화 선언 기업 급증 속
고용시장 경직화 우려 목소리

日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좁혀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공공·민간을 불문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는 기업이 많다. 노동계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에선 우려의 소리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반면 구체적 대책이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신규 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고용시장 활성화 대책이 되레 고용시장을 경직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비정규직 문제가 국가적 사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적극적인 대처는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칸트를 타워로 종합적 고용시장 대책 마련에 착수했

지만 체계적이고 합리적 단계로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궁극적인 물음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에 기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궁극적 목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감으로써 급작스러운 ‘비정규직 제로화’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생노동성 산하에 ‘정규직 전환·처우 개선 실현 본부’를 설치했고, 작년 말에는 ‘동일 노동·동일 임금 지킴안’을 만들었다. 이 지킴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을 담은 것으로, 기업들은 이에 근거해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 그의 교육훈련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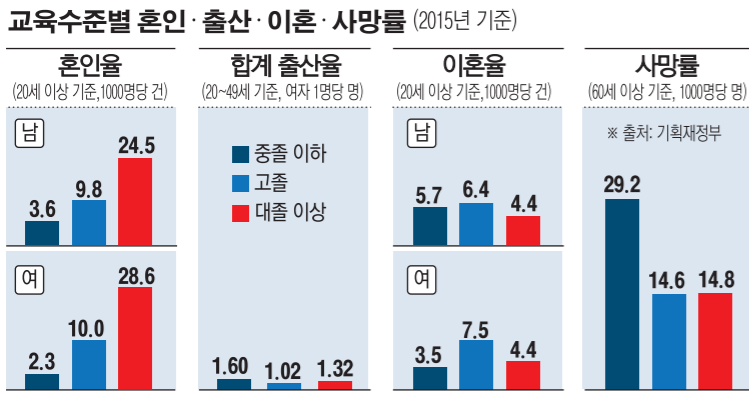


박정원 회장 ▶9 김민주 대표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학력 낮을수록 혼인·출산을 낮고 이혼·사망 위험 높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율은 떨어지고 초혼연령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20세 이상 남성의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5.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대졸 이상 24.5건, 고졸 9.8건, 중졸 이하 3.6건 순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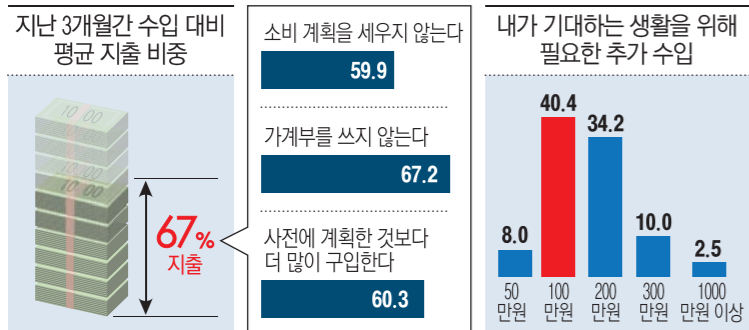
20세 이상 여성의 혼인율은 14.6건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28.6건, 고졸 10.0건, 중졸 이하 2.3건 순이다. 반면 평균 초혼연령은 대졸 이상 남성이 32.5세로 가장 낮았다. 고졸(32.8세), 중졸 이하(36.5세) 순으로 연령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성은 고졸 29.7세, 중졸 이하 29.9세, 대졸 이상 30.2세로 차이를 보였다.

고졸 여성의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02명으로 대졸 이상보다 0.3명 적었다.

2015년 당시 20-49세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23명으로 집계됐다. 중졸 이하(1.60명)가 가장 높고, 대졸 이상(1.32명), 고졸(1.02명) 순으로 낮아졌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국인의 소비 생활 (단위: %)



반 돈 67% 쓰는 한국인... 10명 중 6명 '無계획' 소비

우리 국민은 평균적으로 수입의 70% 정도를 소비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닐슨노리아가 성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수입 대비 평균 지출 비중은 6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48.8%는 "현재 내 수입으로는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0.4%는 월 100만 원의 수입만 더 있다면 기대 생활 수준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34.2%는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계획적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했다. 또 27.2%는 '가격 대비 가치를 고려한 소비'가, 20.4%는 '가용한 예산 내의 소비'가, 6.4%는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라고 응답했다. '한 달간의 소비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로, '계획을 세운다'고 답한 40.1%보다 많았다.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도 67.2%로, '작성한다'고 답한 이들 비율(32.8%)의 두 배였다.

김정용 기자 cogito@

‘등록제’ 시행땐 회계법인 ‘3분의 1’ 퇴출

금융당국, 상장사 회계감독 강화

정부가 상장사 감사인 등록기준 제정을 통해 회계법인의 옥석을 가리려는 것은 부실한 감사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딜로이트안진뿐 아니라 도원회계법인(씨에스 감사), 삼빛회계법인(STX건설)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회계 투명성 강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 감사능력 검증 절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정부·여당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장사 감사인이 30~40개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에는 폭넓게 등록을 허용하지만 검증 과정을 진행하면 2~3년 뒤에는 이 같은 수치를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 의원 측 보좌관은 "제도가 정착되면 등록기준이 더 세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 간 합병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회계법인에 대한 사전적 관리 체계가 없는 것도 감사인 등록제 시행의 배경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만 들여다

“감사능력·인력 등 등록기준 세밀화 2~3년 뒤엔 30~40곳만 생존” 예상

업계 “영세법인 사실상 업무정지” “합병 관련 법령 정비해야” 주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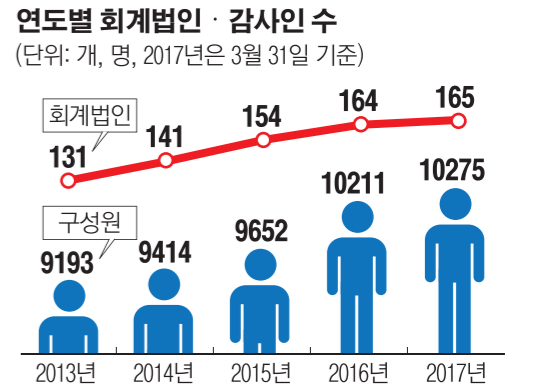
볼 수 있다.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 회계법인의 인사와 자금관리 등의 전반 사항을 살펴보려 하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 세부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중석 위원(자유한국당)은 외감법 3조의 3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조항을 신설하도록 발의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세부 요건은 새 금융위원회가 선임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

감사인 현황 (단위: 개, 명, 2017년 3월 31일 기준)

회계법인 수	구성원 수
100인 이상	11 6537
50인 이상~100인 미만	14 945
30인 이상~50인 미만	17 617
20인 이상~30인 미만	37 904
20인 미만	86 1272
총계	165 10275

*현재는 형식적 요건(자본금 5억 이상·10인 이상 공인회계사 등)만 충족하면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고, 상장회사 감사가 가능함. *출처: 한국공인회계사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하면 사실상의 업무정지를 받는 곳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곳 이상의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70여 곳이다. 이 중 20~30개가 등록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경 도입이 논의됐지만 업계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1~2곳의 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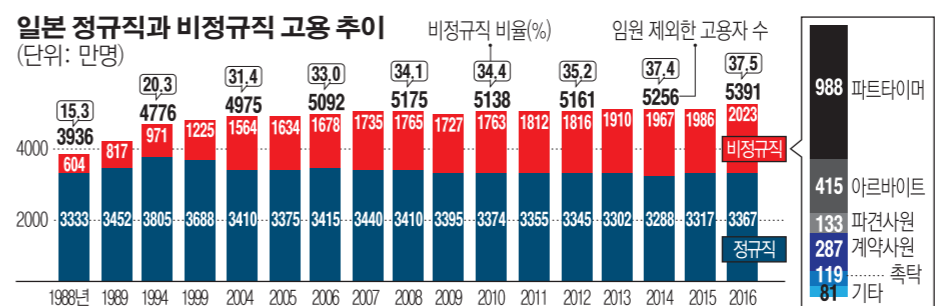
사 감사를 시작으로 해당 업무를 늘려가려는 곳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 간의 합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인회계사법 52조의 2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합병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합병 이후의 법인에 문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 간 합병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소송과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합병 이전의 2개 법인이 각각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재혁·정수현 기자 freshphase@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 저출산·고령화에 ‘일하는 방식’ 바꿨다

‘非정규직 제로화’... 일본은

장시간 노동 규제·고령자 취업 촉진 2015년 ‘정규직 전환 본부’ 만들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착륙 유도



일본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데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노동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아베 신조 정부는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며 노동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시대에 뒤쳐진 노동시장 유연화 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 3월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 △장시간 노동 강제 규제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인제 영입 장려 등 9개 분야의 노동개혁 방안을 내놴. 주목할 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일자리 창출’인 만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다. 여기에는 정부 차

원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 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에 격차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별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급작스러운 우리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에 등 떠밀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완화할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 하되,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점진적으로 좁혀감으로써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구체적으로 일본의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은 성별이나 연령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같은 직종·같은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큰 대우 차이가 직종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현행 일본 노동계약법이나 파트타임 노동법 규정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급격한 차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 선이 불합리한지 판

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게 바로 2015년 후생노동성 산하에 설치된 ‘정규직 전환·처우 개선 실행 본부’다. 여기서 내놓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지침안’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합리적 판단 기준이 나와 있다.

다만, 일본의 이런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침은 유럽연합(EU)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한계는 남는다. 비정규직 처우 차별 문제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EU의 판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아무런 차별을 정규직과 똑같이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은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의 첫걸음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개선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형태로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에 부응하는지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대한민국 물 관리 50년
5천만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움에 늘 목마른 나라! 물의 세상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나라!
국가경제를, 건강과 안전을, 삶의 혁신을, 환경과 에너지를,
그리고 이 땅을 넘어 세계를 위해
K-water는 지난 50년간 물로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물과 함께 50년, 미래로 함께 50년

물 손잡이 시스템 구축 | 물 부가치 창출 | 글로벌 물 서비스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 K water

순환출자 고리 풀려다 '지주사-현대제철' 상호출자 역일라

현대그룹 '지주사 전환' 복잡한 속내

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순환출자하는 곳, 현대차그룹만 남아" 압박
오너家, 기아차 보유 현대모비스 지분 매입하면 해결되지만 4조 자금 필요
현대차·기아차·모비스 분할後 지주사 설립 현실적... 신규 상호출자 생겨
현대제철의 모비스 지분 5.66% 해결이 과제... 최소 1조5000억 마련해야

"순환출자 그룹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승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현대차그룹 하나 남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정자는 지배구조 개편 대상으로 현대차그룹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이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순환출자 구조로는 지주사 설립이 법 테두리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주사 대신 순환출자만을 해결하려면 총수 일가가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각자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나눠 다시 투자부문을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 증권가 안팎의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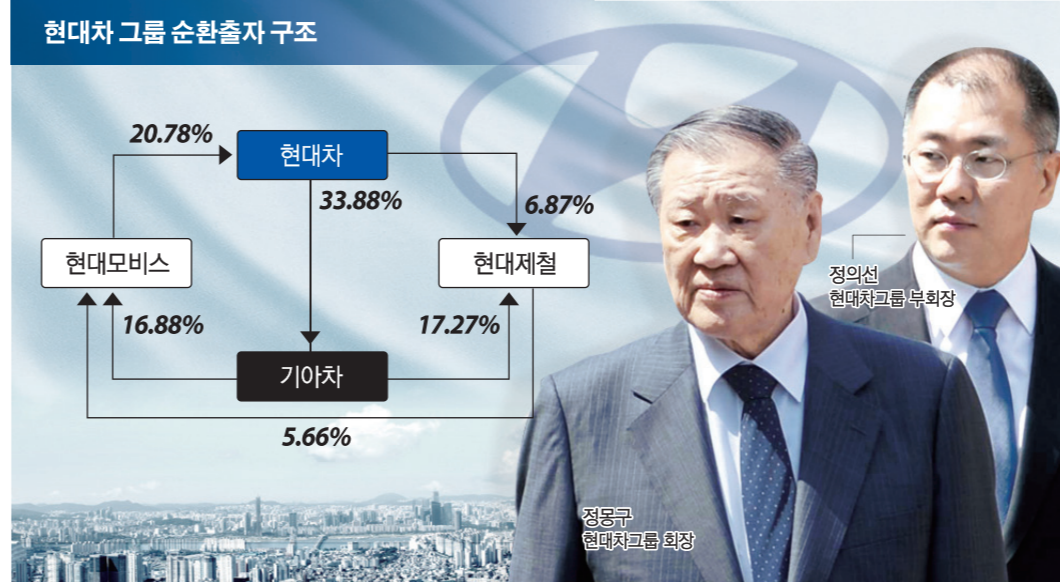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답변 공시를 통해 검토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순환출자 해소하려다 상호출자 문제 생긴다" =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뤄져 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 20.78%를 가진 최대주주다. 현대차는 기아차의 지분 33.88%를 가지고 있다.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의 지분 16.88%를 보유하고 있다. 쉽게 보면 정몽구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 16.88%를 매입하면 순환출자는 쉽게 풀린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다.

이를 위해서는 4조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 순환출자에 걸리지 않는 회사에서 사들인다고 해도 그럴 만한 자금 능력이 있는 비금융 계열사가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각자 분할 통



합'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각각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후 다시 3개사의 투자회사를 합병하는 방법을 말한다. 얼핏보면 큰 자금을 소요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이대로 시행할 경우 혹은 때려다 혹은 붙이는 꼴이 된다. 상호출자가 발생해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북병은 현대제철의 최대주주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다. 현대제철의 최대주주는 기아자동차다.

또 현대제철은 현대모비스의 2대주주이기도 하다.

이런 지분구조에서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차가 각각 투자부문을 분할한 후 합병을 하면 새로운 지주사와 현대제철이 서로 상호출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기업집단의 또 다른 법률적 용어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지렛대부터 찾아야 방법 선택 가능" = 현대차그룹이 '각자 분할 통합' 방법으로 지주사를 설

립하고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방법을 위해서는 기아차와 현대차가 보유한 현대제철 지분을 해결하거나 현대제철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5.66%를 매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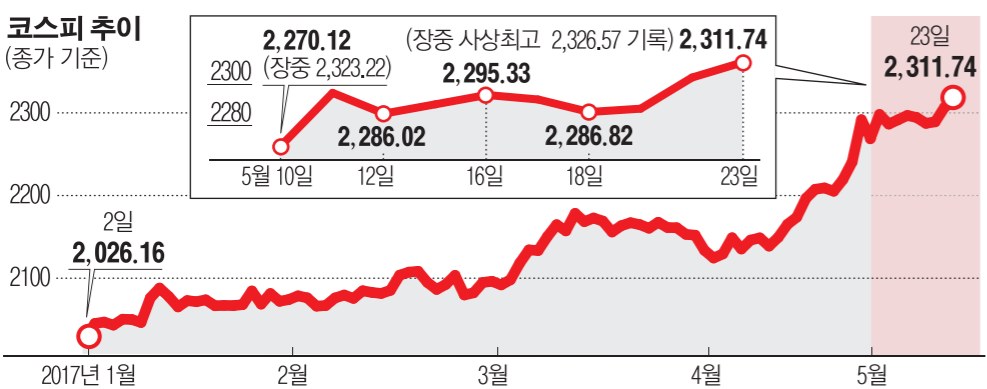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모비스의 최대주주인 기아차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다. 현재 현대제철의 장부상 계상된 현대모비스 지분 5.66%의 장부가액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기아차가 부담이 된다면 이 지분을 인수할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행 법률망에서 합법적으로 순환출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 일부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대주주인 국민연금 지주사 전환 등에 동의할지도 문제다.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승계구도와 직접 연결되는 것인 만큼 반기업 정서가 새로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다단계의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를 설립하려면 상호출자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상호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우섭 기자 hyson0214@



"이젠 주식이다" 방향 튼 投心 부동자금 1000조 유입 초읽기

코스피 34년 만에 이틀 연속 최고치
경기 침체로 부동산 떠난 투자자들
MMF에 돈 넣으며 증시 출격 대기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에 몰릴 가능성이 크어는 때보다 높다고 봅니다."

지금 증권업계는 한껏 들떠 있다. 코스피지수가 34년 만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대세 상승장 초입에 돌입하자, 주식보다는 다른 투자처에 관심이 많았던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전날 2304.03으로 증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코스피지수가 23일에도 장중 사상 최고가(2326.57)는 물론 장 마감 지수(2311.74)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덕분이다. 외국인은 23일 잠시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지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울 들어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 규모는 무려 7조6552억 원에 달한다.

코스피가 대세 상승장 초입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투자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동안 투자가 주춤했던 국내 증시에 1000조 원이 넘는 부동자금 중 상당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 단기 부동자금 규모는 1010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시중 부동자금이 증시로 본격 유입될 경우, 지수 상승을 강하게 견인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울 들어 단기부동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로 30조 원 넘게 몰려든 것으로 나타났다. MMF 설정액도 지난 17일 기준 137조6092억 원을 기록, 전년보다 30%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MMF는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맡기는 데 많이

활용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수시로 돈을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시중 부동자금의 일부가 증시로 유입될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박스권에 묶이면서 거래대금이 정체됐지만, 최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흐름은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주춤했던 주식형펀드 판매 움직임도 올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일부가 국내 주식형펀드로 다시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장기간 이어진 순유출세가 일시적이 아닌 안정적인 순유입세로 전환했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요즘 같이 코스피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 방향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현상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부동산 대책 등으로 상당수 투자자들이 부동산을 팔고 다른 투자처를 찾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면서 "최근 뜨는 주식이 이들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물론, 과도한 기대는 시기성조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등 변수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대형 IT기업들의 실적 3분기 정점을 찍은 뒤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의 추정치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형중 대신증권 마케팅실장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실적 이익 상승 속도도 하반기에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코스피지수 최대 전망치를 2400선 미만으로 제시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홍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바이탈뷰티 명작수

100세를 사는 시대, 당신의 인생은 아직 한창때쯤
길어진 인생 끝까지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홍삼의 온전한 생명력으로
신체 본연의 생기를 되돌려주는 바이탈뷰티 명작수
당신의 몸에 활력을 채워 오래오래 유지되게 합니다

안으로 건강함을 채우고 밖으로 아름다움을 완성하다
이너뷰티솔루션, 바이탈뷰티

· 이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에서 구입가능합니다.
· 고객 상담 전화: 080-023-5454



VITALBEAUTIE

文대통령, 매일 '일자리 통계' 챙긴다

靑 여민관 집무실에 '상황판' 설치
성별·지역 일자리 실시간 확인
집권초 '100일 플랜' 가동 가속
국정기획자문위 추경 본격 논의
실무 총괄기획단장 이호승 내정



김진표(왼쪽에서 두 번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걸고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문 대통령이 근무하는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가동에 들어간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고용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상황판에는 매일 성별·지역별 일자리 현황 통계가 실시간 업데이트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현황을 직접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일자리 사안을 직접 챙겨 대책을 지시하게 되면 정책적인 논의나 대응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집권 초 '일자리 구상' 가동에도 탄

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선 기간 더불어 민주당에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최우선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내놓은 '일자리 대통령 100일플랜 13대 과제' 중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 상황판 가동은 이미 실현됐다. 그다음 우선적으로 실행하겠다고 세 부 과제로 제시된 것이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청년고용 2+1 지원제,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국정 제1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

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개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일자리 추경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제1분과의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고착화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기다릴 순 없다"면서 "정부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한다"는 취지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부터 신

속하고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임시국회인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과제는 최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면서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인 전환 등을 잘 준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과제가 문 대통령의 1호 지시 사안인 만큼 정책 브레인 라인업도 막강해졌다.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상당한 중량감이 있는 이용섭 전 의원이 임명된 데 이어 실무를 총괄할 기획단장은 '정책통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내정됐다.

일자리위 기획단장은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바로 밑의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겸하게 된다. 또 기획부단장에는 비서관급 인사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인 장신철 국장이 내정되며 한 단계 씩 급이 높아졌다. 일자리 수석으로도 문 대통령의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공약을 주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라서 막강한 일자리 정책 진용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민정 기자 puri21@

눈물 닦는 文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대 오른 문재인정부 1기 내각 인선 이낙연 인사청문회 순항할까

靑·與 "흠결 없다" 낙관적 전망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공감대
아들 軍 면제·시세차익 의혹 등
한국당, 도덕성·자질 문제 제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이번 청문회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내각 1기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9일 또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내각에 대한 첫 인사검증 무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별다른 흠결이 없다며 정책 위주의 검증에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이 후보자가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치명적인 흠결은 없다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출공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아들 군 면제 △아내 그림을 900만 원에 전남개발공사에 판매 △아들의 소득 범위 넘어선 전세금 △모친의 서울 도곡동 아파트 매매 시세차익 의혹 등이다. 이 후보자는 아들 군 면제와 관련해서는 "심한 어깨 탈골로 면제 판정을 받았고, 당시 '입대하게 해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아내 그림과 관련해 그는 "구매자가 지역 공사인지 몰랐고, 당시는 전남지사 취임 1개월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들 전세금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직접 벌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보태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적폐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으며, 저 또한 총리가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이라며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 뒤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 나선다. 이어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hlee@

"5대 비리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 부메랑 되나

이낙연 이어 강경화 의혹 발미
한국당 "넘어갈 수 없다" 날세워
민주당 "국민의 판단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밝힌 '5대 비리' 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 공약이 초대 내각 구성부터 문재인 정부의 걸림돌로 작용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5대 비리 가운데 일부 관련 의혹이 드러나 야권의 공격 발미가 되고 있어 서다. 여권은 문 대통령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후보자들의 해명에 대한 국

민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 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노는문 표절 등 5가지다.

24일 오전부터 이를 일점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낙연 후보자는 이 가운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4선 출신 의원인 데다 전남지사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상당 부분 검증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이 후보자에게서 뜻밖의 의혹들이 나오자,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먼저 만발의 위장 전입과 이중 국적 사실을 공개해 예봉이 꺾인 분위기지만, 한국당만은 "스스로 만든 월척머지 짓밟는 인사"라며 이 후보자와 싸잡아 비난하는 중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뤄진 인사를 보면 한국당의 문제제기는 '남에 게만 엄격한' 잣대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5대 비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내각 후보자들에게 단골메뉴처럼 제기됐던 의혹인 까닭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한 노무현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는 3명인 데 비해 한국당이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8명, 10명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낙마자

는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싸였던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 외엔 '코드인사' '자질·역량' 등이 이유가 됐다. 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엔 5대 비리 의혹 가운데 2, 3가지 의혹에 또 다른 의혹까지 더해져 낙마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 포함됐던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뺀 나머지 4가지 의혹이 모두 제기됐고, 이준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병역 기피 의혹에 싸여 낙마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의혹을 받다가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도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전관 예우 등의 의혹을 받는 등 초대 각료 후보자 중 5명이 차례로 낙마했다.

김미영·정용욱 기자 bomnal@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이자 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휴양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 진단 8 저출산·고령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강화··대책 총망라 아동수당 소요재원 2조6000억··5년간 600만 원 저출산 해소엔 ‘글썽’ 현재 주무부처 복지부 영역 넘어 노동부·교육부 함께 정책 추진해야

저출산·고령화는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 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은행은 2030~2040년에는 노동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제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시간이 18년으로 그 속도가 주요국 대비 매우 빠르다.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고령화 공약을 복지 공약과 따로 낼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가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으로 활동한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 강화는 중요하다”며 “교육·노동시장 등 사회구조적인 개혁에는 기득권의 반대가

있어 쉽게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 많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챙겨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새 정부는 또 아동수당을 도입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문가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아동수당에 2조6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다만 아동수당을 준다고 예를 더 넣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5년간 합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인데,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대일 교수도 “효과는 없고 돈은 많이 들어간다”며 “출산율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보육료 자율화 통해 고소득자 자녀들의 선택폭 넓히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양질의 서비스 마련해야”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도 중요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 빨라 근본적 해결책은 의문”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기초연금 수혜 기준 너무 광범위해···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중심 타기팅해야”

이영욱
KDI 연구위원

문재인 정부 저출산·고령화 주요 공약

1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상 강화	3 국공립 어린이집 40% 수준까지 확대
2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4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보육의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크다”며 “여전히 남은 60%의 사립시설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일 교수는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보육료를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료를 자율화해서 부자들은 돈을 더 내고 비싼 데를 다니고 정부는 취약계층

층에 질 좋은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을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고령화가 빨라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욱 연구위원과 김대일 교수는 소득 하위 70%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어르신

들이 노후 대책이 없고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면 모두에게 주기보다는 타기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감당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공약이 실현 여부를 떠나 이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건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면 저출산 고령화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다”며 “저출산 고령화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노동시장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 정부의 공약이 현재 할 만한 것은 거의 다 포함시켰다”며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해 병행비를 지원해주는 상병수당만 빼면 다 있다”고 분석했다.

이영욱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보육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간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나 교육부가 맡아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고치면 고치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이나 노동시장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새 정부가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OECD “文정부, 규제개혁 우선 추진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미흡 국회 내 규제 품질관리 기구 등 도입 정책입안 초기 폭넓게 의견 수렴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전체 법안 발의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규제 영향 분석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24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권고한 ‘한국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1990년대 말부터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제도와 절차, 정책을 도입·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학계 중심인 규제개혁위원회에 폭넓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규제 심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올해 한국의 규제개혁과 성과 개선을 위한 국가별 심사를 받았다.

OECD는 한국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성과 등을 5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

으며 독일, 영국, 칠레 정부가 회원국 심사단(PEER)으로 참여해 OECD와 공동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규제 품질 관리·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관리 제도가 미비하다고 했다. 법안 발의 전 공청회 등을 거치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국회 내 규제 품질 관리를 위해 규제 영향 분석 실시, 일몰제 자동 적용 또는 국회 내 규제 품질 관리 상설 기구 설치 등 다양한 개선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는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어,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규제차등화, 한시적 규제유예 등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상태”라면서도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규제를 도입하고 신설 규제에 대해 적용 유예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엘리 기자 ellee@

세계 최초 ‘통합 의료접착제’ 개발 상처 치료·흉터 방지 기능 갖춰 해수부 상용화 임상시험 추진

국내 연구진이 통합을 활용해 상처 재생과 흉터 억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의료접착제 개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는 통합의 접착 단백질과 인체 조직에서 추출한 자연치유 성분을 결합해 상처 치료 기능과 흉터 방지 기능을 함께 갖춘 혁신적인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해양수산 생명공학 연구개발(R&D) 사업 중 포스텍(POSTECH) 차형준 교수 연구팀이 주관하는 ‘해양 섬유 복합소재 및 바이오플라스틱소재 기술개발 과제(2010~2019년, 460억 원)’의 성과물이다.

연구진은 2015년에 통합의 접착 단백질을 소재로 인체 거부반응이 적어 의료용 적합성을 대체할 수 있는 접착제를 개발했다.

이후 이 접착제에 인체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복합 탄수화물 성분(프로테오글리칸)을 결합시

키는 연구를 진행해 단순 접착 기능 외에 재생 및 흉터 예방 기능 등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접착제 개발에 성공했다. 새로 개발한 의료접착제를 쥐의 피부 상처 부위에 도포한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상처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빨랐으며 흉터 역시 정상적인 피부 조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차형준 교수는 “해양생명자원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상처 재생 기능과 흉터 억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인 의료 접착제를 개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도록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처 및 흉터 치료제 시장은 2015년 기준으로 약 410억 달러(45조 8000억 원) 규모다. 해수부는 앞으로 연구진이 지난해 설립한 벤처기업을 통해 임상시험 등을 추진,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곽도훈 기자 sogoo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2932호 (2016.06.03~2017.06.02)

KYOBO 교보증권

교보증권 체크카드와 함께하는 건전한 소비습관의 시작

SSG.COM LOTTE.COM

해택의 크기가 다른!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전 가맹점 0.5% 캐시백? 모두모아 체크카드

부자되세요 더마일리지 체크카드 서비스

마일리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최대 1천원당 1마일)
온라인몰	온라인몰 5% 할인(SSG,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
외식	점심 11시~14시 음식점 10% 청구할인
커피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10% 청구 할인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10% 청구 할인
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10% 청구 할인
통신요금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스포츠	프로야구, 축구, 농구, 배구 예매 20% 할인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한도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모두모아 체크카드 서비스

캐시백 전 가맹점 0.5% 캐시백(이용한도 내 적용)

※ 전월 실적 20만원 이상 적용
※ 상세 서비스 내용 및 할인 기준 등 교보증권 홈페이지 참조

공동 혜택

CMA 금융서비스 혜택	CMA 계좌 내 잔고를 RP에 자동투자하여 수익 제공
소득공제 혜택	신용카드보다 30%의 소득공제 혜택

서비스 제공 조건

- 전월 실적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내 가맹점에서의 이용금액을 의미하며 전월 실적 산정 시 5개 온라인몰(SSG닷컴, 롯데닷컴, 엘롯데, AK몰, 갤러리아몰), 제세공과금, 상품권 구매액은 제외됩니다.
- 모든 서비스는 비씨카드에 등록된 가맹점 기준을 따릅니다.
- 카드수령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카드이용실적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됩니다.

고객센터 1544-0900

카드문의 1566-2224

홈페이지 www.iprovest.com

※ CMA입금액은 RP에 투자되며, R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적전문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 관련 상세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법무부의 脫검찰화' 목소리

행자부·경찰 관계와 달리 檢 인사·예산권 독립 안돼 정권과 연결고리...수사 간섭·부적절한 밀착 관계로 현재 검사 70명 법무부 소속...“친정 돌아갈 생각만”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앞두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검사장 6명, 부장검사 25명, 평검사 39명 등 총 70명이다. 법무부 내 요직은 대부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인사권, 예산권이 독립돼 있는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가 직접 관할한다. 검찰이 인사와 예산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경우 감사를 받고 국회 등과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밀착 관계가 오히려 부당한 수사 간섭의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소 직후 부적절한 만찬을 가져 논란을 빚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정권과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 돈봉투 만찬 같은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무부가 완전히 탈검찰화해 문민화하

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사인력이 아닌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법률적인 소양이 필요한 직책에는 변호사를 채용하고, 교정 분야 등에는 공무원을 두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인권, 범죄예방, 출입국, 외국인, 교정, 보호관찰 등 각종 법무행정을 담당한다. 미국은 500여 명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성장의 변호사는 “정재기판인 법무부는 안권옹호 등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검사들이 잠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검사가 아닌 인력을 장기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또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견제와 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적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 간 검사들도 친정에

돌아갈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21일 대검 처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은 검찰 내부 인사로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조만간 이뤄질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선은 외부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국정플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신중한 인사스타일이 보인다. 보고서에는 역대 정부 인사 낙마 사례를 나열하면서 “집권 초기 인사 실패는 국정동력을 무너뜨리는 최대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범조계 인사로는 노무현 정부의 전호숙 헌재소장 후보, 이명박 정부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박근혜 정부의 이동홍 헌재소장 후보 등이 언급됐다. 특히 “6개월, 1년 동안 몇몇 개혁과제에 집중한 뒤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 향후 개혁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나온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약식 올림머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은 집계된 17개와 머리카락 3개로 직접 올림머리를 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거점으로

기존 7개 철도 노선에 5개 추가...지하서 환승, 지상엔 상업시설

서울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중추 교통 거점으로 거듭난다. 기존 7개 철도 노선에 5개 노선이 추가되고, 지하에는 환승 구역, 지상에는 상업시설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하고,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울역에는 현재 운영 중인 7개 노선에 KTX 1개 노선(수색~광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개 노선(A·B 노선),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 5개 신규 노선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이다.

5개 노선은 구축 일정도 확정돼 있지 않지만, 2025년이나 2030년이면 완료될 전망이다.

신규 노선이 모두 구축될 경우 서울역의 일일 유동인구는 현재 33만 명에서 49만 명이 추가로 늘어 하루에 총 82만

명이 이용하는 메가 허브역이 된다. 아울러 통일시대가 되면 서울역은 경의선과 경원선의 시발역이자 유라시아 철도망의 아시아 축 출발역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메가 허브역으로서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색-광명 고속철은 통일될 경우 경의선과 이어져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로 이어진다.

이번 연구용역은 서울역 지하공간에 장래 신설되거나 기능이 강화될 노선들이 충분한 선로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노선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하공간에 간선철도, 지하철,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일본 도쿄역처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업·유통시설 등을 조성해 단절된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내년 5월까지 수행해 서울역의 교통 허브망 기능 강화는 물론 서울역을 인근지역의 도시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추가 노선



계획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근 개장한 '서울로 7017'처럼 일제 보행체계를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서울역 개발에 서울시가 앞서 추진한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연구용역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권도훈 기자 sogood@

냉면 음식점 '사리원' 상호 특허권리 유효 법원 "지명으로 알려지지 않아"

북한 지역인 '사리원'은 지명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냉면음식점 상호로 독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 씨가 '사리원면옥' 특허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리원은 북한의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1947년 시로 승격된 뒤 1954년 황해도가 황해북도·황해남도·남해남도·남해북도·도청 소재지가 됐다. 김 씨 측은 1994년 6월 '사리원면옥'을 냉면전문식당업으로 출원했다. 라 씨는 '사리원면옥' 등록서비스권리 보유인 김 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리원'을 상호로 독점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국적으로 '사리원' 부분을 포함하는 상호의 식당이 다수 존재한다거나 이 지역 출신의 실화민과 자손 수 상당한 점 등만으로는 '사리원'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신속 재판' 의지 밝힌 법원 구속기한 前 판결 나올 듯

朴·崔 병합 심리 매주 3~4차례 재판...월·화요일 증인신문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매주 3~4차례 열려 이르면 10월 중순쯤 선고될 전망이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 내용과 증거내용이 방대해 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혐의가 18개에 달한다. 사건 기록만 12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증인 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심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도 고려해야 한다. 4월 17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매주 월·화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61) 씨의 삼성 뇌물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최 씨 사건은 이미 9차례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같은 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사건을 합쳤다. 그 외 다른 날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서정 조사를 한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10월 중순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구속이 만료되면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형량이 가장 중한 뇌물죄가 핵심이다. 재판부도 삼성과 SK, 롯데 뇌물 혐의 순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부정유류세 승마지원 77억 9735만 원(약속금액 21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재단센터 16억 2800만 원 △SM리:K스포츠재단 204억 원 등 총 59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밖에 롯데와 SK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거나 약속한 금액까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05 vol.29 MAY 2017

배우 정동현의 회로애락
그사람, 관찰되었는데...
자연 채식의 수수하고 담백한 맛
제211생 '문화해설사'

BRVAO 5월에 생각하고 싶은 것
자녀교육의 대모, 전혜성 박사와의 특별한 만남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하슬라아트힐도
20년째 도인처럼 사는 남궁옥분

정기 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loday.co.kr

COVERSTORY 가족여행

PART1. 속앓이 쏟아내는 '재미' 가족들과 나눈다 류시호 시인·수필가
PART2. 꿈 많은 아바와 딸의 꿈같은 청춘여행
PART3. 58년 개띠 아버지와 88년 옹피 아들의 용기백배 세계 일주
PART4. 딸은 엄마랑 아들은 아버지랑, 따로 특별했던 그 여행
PART5. 80세 엄마와 특별한 동행 최은주 동년기자

문학관 답사기 영인문학관
文人戀情, 문인을 향한 연정 쌓이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편한 것이 좋고, 느린 것은 싫고, 오랜 것은 쉬이 버려버리는 요즘 세상, 옛 추억을 끄개 간직하고 진정한 사람으로 그리워하는 문인들의 인식차가 있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영인문학관이 바로 그곳. 문학관을 가득 메운 모든 공기와 기운은 이 세상 모든 문인에게 보내는 연정이다. 컴퓨터 모니터 앞, 최첨단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깊게 내쉬어보고 싶다면 바람 잔잔히 와 있는 그곳에 가보시라.

5월의 산책
부처님오신날, 손주와 함께 영인 나들이
올해 5월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징검다리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석가탄신일(3일)은 어린이날과 가까워 손주와 함께 나들이 갈 곳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와우정사에 들러보고, 인근 영인농촌테마파크까지 즐겨보는 것 어떨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

“자식 잘 키워낸 노후가 행복해져요”
자녀교육의 대모 전혜성 박사가 말한다

“음식을 의식주의 하나가 아닌 마음으로 보라”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조화를 말한다

“미용이 아바 배우 한갑수 태몽을 지니니 미용 인생이 찾아왔다”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자연 채식의 수수하고 담백한 매력
마늘, 파, 부추, 달래, 무릇(홍게) 등 우리 사찰에서 금하는 다섯 가지 채소를 '오신채(五辛菜)'라고 한다. 재료의 성질이 맵고 향이 강해 수행에 방해가 돼 먹지 않는다. 사찰음식의 개념을 넘어 '한국 전통 채식'의 의미를 더한 무신채(無辛菜) 식단을 지향하는 맛집 '마지'를 찾아갔다.

이봉규 心治 데이트 20년째 도인처럼 사는 '남궁옥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포크송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남궁옥분은 이기적일 정도로 행복에 집착한다. “우주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그녀는 “태양도, 나무도, 꽃도, 사냥감도 언제 울지도 모르는 나를 위해 아름답게 자라고 흐르는구나”라고 생각한다든 것.

동년기자의 페이지
최원국·이경숙·손용익·변용도·박종섭 동년기자 그 사람, 참 관찰되었는데...

부치지 못한 편지
황경춘 언론인 여자 친구,업에게



옳은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만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인류의 내일까지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혁신


그 곳에서 우리의 옳은 미래를 봅니다.



 더 청정한 세상을 위해

 태양은 저도
태양에너지는 빛나는 밤



 더 건강하고 풍족하게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자본 확충 서두르는 케이뱅크 '은산분리 특례법'이 받쳐줄까

출범 45일 만에 여신액 3100억 기록
별써 올 목표치 77%...연내 증자 시급
금융위 '인터넷은행 특례' 우선과제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 "당분간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연내 최소 1900억 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수백억 원의 필요 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3일 출범한 케이뱅크는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중 시스템 구축이나 인건비 등으로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 금융권은 케이뱅크가 원활한 대출 업무를 위해 2-3년 내에 2500억 원 이상의 자본이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서두르는 이유는 영업 개시 이후 대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45일 만인 지난 17일 기준 여신액이 31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인 4000억 원의 77%를 넘어선 셈이다. 예·적금 등 수신액도 목표(5000억 원) 대비 76%인 3800억 원을 기록했다. 여신액을 충당할 수 있는 수신액이 함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은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과 소호(SOHO)대출 등이 출시되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가 강점인 만큼 대출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대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필요하다"며 "은산분리 완화 이슈가 조속히 해결될지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확충의 최대 현안은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실권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케이뱅크는 설립 당시 주력 사업자인 KT를 비롯해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등 모두 21곳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 중 8%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1-3%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만약 케이뱅크가 자금 유상증자에 나선다면

모든 주주가 자본유에 따라 출자를 해야 한다. 절반이 훌쩍 넘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다.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특례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특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요원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은행법 개정보다 특례법 제정이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위원장이 부임하면 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회 등이 있어 관련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효진 기자 js62@

'NH-PAY'로 디지페이... "접대문화 없애요"



NH농협금융지주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NH-PAY'의 날에 임직원인 NH농협은행의 '올원뱅크'를 이용해 디지페이하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NH-PAY는 작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농협금융의 '새로운(New) 습관(Habit)'으로 정착시켜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운동이다. 오병관 농협금융부사장(왼쪽)이 임직원과 올원뱅크를 이용해 식사비용을 나눠 내고 있다. 사진제공 NH농협금융지주

'보험금 예치이자' 멋대로 깎은 生保社

"묵혀만 놓으면 年 8.5% 복리로 계산"
2000년 전후 연금·교육·상해 판매
최근 2년새 저금리 기조 역마진 우려
"소멸시효" 주장하며 수백만원 털 쥐
금감원은 나몰라라... "직무유기" 눈총

김모(65) 씨는 1996년 동양생명 개인연금저축(수령기간 10년)에 가입했다. 김 씨는 2012년 연금계시 연도 첫해만 보험금을 받고, 설계사 권유로 2-10회 차까지는 보험금을 예치했다. 김 씨는 "설계사가 한 번만 타고 끝까지 예치해놓으면 연 8.5% 복리로 돌려준다고 해서 안 찾고 맡겨놨다"고 했다. 월래 김 씨가 받아야 할 예치 이자는 1453만9000원이지만 동양생명은 김 씨에게 586만849원만 준다고 통보했다. 내부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예치자를 한 가입자당 수백만 원 이상 털 지급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금을 예치하는 상품은 2000년 전후 고금리 시기 한화, 교보, 동양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이 앞다퉈 팔았다. 고액 예치금을 굴러 높은 자산수익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주로 연금·교육·상해보험 등이 해당됐다. 보험사들은 고객몰이를 위해 상품약관에도 '지급방법 변경 시(예치 등) 미지급 금액에 대해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준다"고 명시했다. 당시 '예정이율(7.5%+1%)은 8.5%'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령 기간까지 예치 보험금을 연 8.5% 복리로 부리 해왔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보험사들은 저금리 상황에서 역마진이 우려되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예치이자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나왔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2015년 3월 이전은 2년)지만 연 8.5% 복리로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상품 약관에 부리 이율(예정이율+1%)은 나와 있지만, 부리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소멸시효 주장은 영뚱하는 지적이다.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조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힐링)는 "애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받을 것을 예치해 놓은 건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며 "그런 논리라면 소멸시효 지난 원금도 안 주겠다고는 왜 말하지 않나"고 했다. 예치이자를 고금리로 지급 안 하려다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금융감독원의 '나몰라라' 식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실태 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지난해 3월 23일 진흥원 금감원장을 만나 생보사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자살보험금 이슈만큼의 심각성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알리안츠 '손보' 14년 만에 한국시장 귀환

금융위에 본인이 신청... 화제·해상 등 기업성 보험만 취급 계획

알리안츠손해보험이 14년 만에 국내 시장 재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에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보험업 본인가를 신청했다. 알리안츠손보는 일반손해보험을 위주로 영업하고,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가계성보험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등이 포함된다. 제3보험업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이 해당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알리안츠손보 한국지점의 사무실은 광화문 서울파이낸스센터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를 위한 실사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생기면 (최종 인가)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손보가 최종 인가를 받으면 14년 만에 한국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알리안츠그룹은 2002년 알리안츠화재해상 한국법인을 설립했지만, 1년 만에 사업을 접고 철수한 바 있다. 당시 알리안츠그룹 측은 당초 그룹이 세웠던 사업계획과 한국

시장 상황이 안 맞아 철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보험사의 국내지점은 보험업법 제75조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적립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제120조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중국 안방보험그룹도 국내 보험시장 투자를 확대하면서 손해보험시장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및 알리안츠생명에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보험은 손해보험업으로 성장했다. 2년 전에 인수한 동양생명에 배치된 임원 일부도 안방손해보험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동양생명의 야오파평 이사회 의장, 뤼젠롱 부사장(사내이사)이 안방손해보험을 거쳤다. 야오파평 이사회 의장은 안방손해보험 사내이사 겸 총경리를, 뤼젠롱 부사장은 안방손해보험 총경리 보조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DOUZONE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로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일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줄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휴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휴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저로 수집, 입력 등 전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역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삼성 다음... 公正委 칼끝, '금호' 겨누나

경제개혁연대 “금호산업 인수과정 계열사 간 자금거래 위법 혐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이행 안해... 이자율 낮춰 부당지원 가능성
공정위 정식조사 땀 ‘타이어’ 인수 등 그룹 재건에 악영향 미칠 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와 자금거래를 할 때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 경우 금호타이어 매각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3일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경제개혁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자금을 대어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으로 추정된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상 재벌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자본총액(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에어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대어금이 자본총액의 12~39%에 달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호 계열사들이 만약 자금거래를 자본총액의 5% 이하로 나누어 했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박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홀딩스를 설립해 금호산업을

인수한 뒤 2016년에 금호산업, 아시아나 아이디티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 원을 차입했다.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로 낮은 것도 지적했다.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 6.5~6.75%보다 훨씬 낮아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펀드가 금호홀딩스 출자 자금 확보용으로 2015~2016년에 발행한 100억 원어치의 회사채를 금호 계열사인 아시아나세이비아가 모두 인수하고, 금호그룹 산하 2개 공익법인이 100% 자본을 보유한 케이아이 등 3개사가 금호홀딩스에 100억 원을 출자한 것은 재권단이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계열사 자금동원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금호산업을의 자본 46%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주주인

데도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회사가 이사회 주요주주(지분율 10% 이상이거나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자기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3분의 2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KDB산업은행이 향후 금호산업 때와 같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자금조달 능력 부분 판단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금호산업 매각 당시 산업은행이 ‘계열사 자금 동원 금지 원칙’을 제시했으나 금호기업이 금호산업을 인수한 이후 금호그룹 계열사들은 직간접적으로 금호기업 등과 자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삼구 회장은 현재 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인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산업은행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주)두산 연료전지 익산공장 준공식

박정원(오른쪽에서 아홉 번째) 두산그룹 회장과 주요 경영진들이 23일 전북 익산시에 세워진 ‘두산 연료전지 생산공장 준공식’에서 세리머니 버튼을 누르고 있다. 사진제공 두산

두산, 국내 최대 연료전지 공장... ‘글로벌 넘버원’ 꿈 성큼

총 400억 투자... 전북 익산에
친환경에너지 육성정책 맞물려
연료전지 판매확대 기대감 솔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공장을 준공했다. 주요 부품 국산화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80여 개 협력사와 지역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한다는 각오다.

두산은 전라북도 익산시 제2일반산업공단에 연료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3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동현수 두산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1만744㎡ 부지에 세워진 이 공장에는 총 400억 원이 투입됐다.

문 대통령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현재 4.6%에 머무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사업자가 전제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가 상향조정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RPS 목표가 올라가면 두산의 연료전지 판매도 늘어날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화력발전 대비 40%가량 적어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연료전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스택’ 생산라인을 자동화해 품질과 생산능력을 대폭 개선했다”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던 ‘BOP’도 국산화해 원가 경쟁력 역시 갖추게 됐다”

고 강조했다.

두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박 회장의 숙원이다. 그는 2014년 두산의 수장으로 있을 때,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업체 ‘퓨얼셀파워’와 미국 연료전지 업체 ‘클리어엠티퍼워’를 잇따라 인수하며 연료전지 사업의 골격을 만들었다.

박 회장은 지난해 3월 그룹 회장 취임식에서도 “연료전지 사업을 글로벌 넘버원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공장 준공은 그의 꿈을 실현해 줄 첫 단추인 셈이다.

삼성전자, 新소비거점 러시아 공략 강화

삼성전자가 새로운 소비 거점으로 부상하는 러시아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후호적인 경제 상황뿐 아니라 스마트폰 보급과 LTE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삼박자를 갖춘 러시아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소비자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2일(현지 시각) 러시아에서 뉴스룸 서비스를 시작했다. △글로벌 △한국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독일에 이어 여덟 번째 뉴스룸이

다. 삼성전자는 현지 소비자에게 ‘삼성’ 브랜드 가치와 비전, 최신 제품 및 사업적 협력과 지역사회 지원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러시아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고객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공들이는 이유는 높은 잠재 성장력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과

8번째 ‘뉴스룸 서비스’... 현지 소비자와 소통 확대 나서
스마트폰 확대 기조... 적극적 마케팅 통한 선두 지키기

LTE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제이슨앤파트너스 컨설팅은 2019년까지 러시아 스마트폰 판매량이 421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스마트폰 점유율은 전체 휴대폰 시장의 93% 이상으로 확대돼 당분간 러시아 시장 스마트폰 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상황도 우호적이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

한경연 “구글 성장 밑거름됐던 ‘차등의결권’ 국내 도입해야”

구글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차등의결권’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인 장기투자와 외부 헤지펀드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 증시에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2004년 1%에서 2015년 13.5%로 증가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그루폰, 링크드인 등 최근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중 구글이 차등의결권의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2004년 상장에 나섰던 구글은 당시 1주

당의결권 10배를 갖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 동창업자들이 지분 63.5%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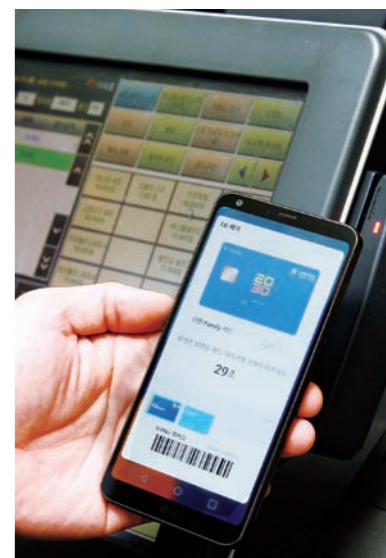
이에 따라 단기 실적보다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 경영 활동이 가능했고, 상장 11년 만에 매출액 24배, 영업이익 30배, 고용 2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한경연은 평가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고 성장했던 애플은 곤욕을 치렀다. 애플 주식 680여만 주를 보유했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캐피탈은 지난해 애플에 1371억 달러(우리 돈 약 150조 원)를 배당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유한이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차등의결권은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등을 돕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면서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베일 벗은 LG페이

오늘 ‘월드 IT쇼 2017’서 첫선
매번 새 카드번호... 보안 강화
국내 8개 카드사와 제휴 완료
다음달부터 국내 서비스 개시



LG전자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 ‘LG페이’가 베일을 벗었다.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의 후발주자이지만 사용 편의성과 강력한 보안성을 갖춘 등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LG전자가 24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흘간 열리는 ‘월드 IT쇼 2017’에서 6월 서비스 시작 예정인 ‘LG페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LG전자는 관람객들이 간편하게 LG 페이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LG G6와 카드 결제기를 비친한 별도 체험존을 마련했다.

LG 페이에는 오프라인 결제 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틱 기술인 ‘WMC(Wireless Magnetic Communication)’가 탑재됐다. 모바일 기기에서 마그네틱 신호를 발생시켜 이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면 결제되는 방식이다.

높은 보안성도 갖췄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지문인증을 거칠 뿐만 아니라 결제할 때마다 새로운 가상 카드번호를 발생시켜 카드번호 유출을 방지해 안전 장치를 강화했다.

LG전자가 24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나흘간 열리는 ‘월드 IT쇼 2017’에서 6월 서비스 시작 예정인 ‘LG페이’를 첫 공개했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는 6월 중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미 준비도 마쳤다. LG전자는 최근 LG 페이의 국내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사내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 완성도도 끌어올렸다.

또한 LG전자는 신한, KB, BC, 롯데, 현대, 하나, NH, 삼성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 모두와 LG페이 서비스 참여를 위한 제휴를 완료했다. 우선 서비스 출시와 함께 신한, KB, BC, 롯데 4개 카드사가 LG 페이를 지원하며, 9월에는 모든 카드사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계 “우리도 알파고처럼”

중저제 9단에 압승 성능 진일보
자율주행차·로봇 개발 활용 기대
AI기술에 대한 인식변화 효과도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예상대로 중국 국제 9단과의 첫 대국을 승리

효과로 인해 AI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길기대하고 있다.

알파고는 1초에 수백만 번의 연산을 거듭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주의 수를 분석하고 상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번 국제 9단과의 대국에서 국제 9단의 수 57%를 미리 예측하기도 했다.

이 같은 원리는 자율주행차의 AI에도 도입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는 도로를 달리면서 주변을 함께 달리는 다른 차의 속도와 운행 형태, 차선 변경, 이동 각도 등을 인식한다. 이 영상을 그래픽으로 바꾼 뒤 이들의 움직임에 미리 대응 준비에 나서기도 한다. 갑작스런 움직임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는 세계 바둑챔피언인 중국의 국제 9단과의 첫 경기에서 압승했다. 이제 첫 대국이 끝났지만 바둑계와 IT 업계에서는 알파고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바둑계는 지난해 이세돌 9단과의 대국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알파고의 약진은 곧바로 AI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자율주행차 AI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예컨대 자동차업계에서는 ‘무인자동차’가 주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차(autonomous)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무인(無人)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에 알파고

정부는 올 초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을 밝혔다.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알파고 효과는 단순한 기술적인 차이를 넘어 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더 크다”며 “AI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코오롱플라스틱, 김천 제2공장 준공

고기능 엔지니어플라스틱 본격 생산

코오롱플라스틱이 경북 김천에 제2 공장을 완공하고 고기능성 엔지니어플라스틱 소재 생산에 나섰다.

23일 새로 건립된 김천 제2공장은 경북 김천산업단지 내 6만6000㎡(약 2만 평) 부지에 총 430억 원을 투자해 지어졌다. 지난해 말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최근까지 최적 생산 조건을 확보하는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곳은 코오롱플라스틱의 주요 제품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북

합소재(CFRP) 등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컴파운드는 플라스틱 베이스 제품에 특정 첨가제를 혼합해 다양한 물성을 충족시키는 고기능성 플라스틱으로 최근 자동차 경량화 추세와 맞물려 사용량이 늘고 있다.

신설된 공장은 첨단 설비를 신규 도입해 초내열, 고강성, 고내충격 등 특화된 컴파운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해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은 영원할 수 없기에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운 물을 찾아야 하기에
두산은 지구의 97%인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영원히 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물이 부족한 몇몇 나라를 위한 기술이지만
미래엔 지구와 사람을 지켜줄 생명의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해수담수화 플랜트 기술로
1,700만 명이 사용 가능한
500만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장점유율 세계 1위
(2011-2015 Thermal 부문, GWI 발표기준)

벌써 몇번째... 4대강 정책감사에 건설사 '노심초사'

**MB정부 국책사업 수백개 기업 참여
입찰 담합 과징금으로 한때 곤욕 치러
"감사 지켜보면서 대응 여부 결정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시사하면서 관련업체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 감사가 확대될 경우 시공을 맡았던 건설사들이 다시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문 대통령이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坝)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공사 이후 담합 등에 대한 처분은 마무리됐지만, 재감사를 거쳐 수사가 확대될 경우 어떤 불똥이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수많은 공사가 일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대형건설사를 비롯해, 컨소시엄까지 포함할 경우 수백 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1차 적발한 17개 건설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2014년 11월에는 다시 7개사의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해 152억1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이어 담합 의혹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일부 대형 건설사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수차례의 제재에 이어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가 포함되면서, 사태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우세

했다.
하지만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 소식에 건설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설사도 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없이 동원된 업체들도 있다"면서 "공사가 끝난 지 몇 년 된 상황에서 다시 조사가 시작된다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일단 건설업계는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정합성을 찾는 데 정책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밝힌 만큼,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건

설사 관계자는 "감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단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지만 일단 감사를 지켜보면서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검토에 착수한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하지만 입찰과 공사가 서둘러 진행되면서 보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입찰 공구를 사전에 담합했고, 이로 인한 후폭풍도 거세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시가 회현동과 중림동을 잇는 고가도로를 고가공원으로 조성해 20일 개장한 '서울로7017'. 사진 속 '서울로7017'의 위쪽 끝 왼쪽이 회현동 상가 지역이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형 '뉴스테이' 내달 첫선

영등포 'H 하우스 대림' 293가구...김포 한강 등 줄이어 분양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택사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내달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피투게더하우스가 공급하는 총 293가구 규모의 'H HOUSE 대림 뉴스테이'가 6월 분양시장에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994-1, 2번지 일원에 들어서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26~38㎡로 구성된다.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초역세권 단지로 KCC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입주자는 8월께 가능하다.

올해 서울에서는 뉴스테이 공급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번 'H HOUSE 대림 뉴스테이'를 비롯해 개봉(1089가구), 독산(1065가구), 문래(737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에서도 김포 한강(1770가구), 사릉 장현(651가구), 용



'H HOUSE 대림 뉴스테이' 투시도.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 뉴스테이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인 삼가(1950가구) 등에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만 가구를 웃도는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해 영업인가 4만2000가구,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서쪽 중림동은 뜨는데 동쪽 회현동은...

공중공원 '서울로 7017' 엇갈린 특수...해당 상가들 울상

지역 시세 10년 넘게 3.3㎡당 1억 유지
남산 인근 '고도제한 지역' 묶여 걸림돌
서울시 "과밀화 방지...개발수요 억제"

서울 고가공원 '서울로7017'의 개장으로 서울로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중림동 상권이 특수를 맞고 있는 데 반해, 반대쪽에 있는 회현동 상권은 반사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로 동쪽에 위치한 회현동 상권은 서울로의 개장에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현동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특성과 남대문시장이라는 대형 상권의 존재로 대교변을 중심으로 3.3㎡당 1억 안팎의 시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10년 전 형성된 상권 시세가 서울로라는 대형 관광상품이 인근에 등장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동 없이 쪽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로 개장의 영향으로 중림동 상가 시세가 1.5~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는 데 비하면 특이한 현상이다.

인근의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남산 인근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을 지적하기도 한다. 흔히 '고도 제한 지역'이라 부르는 최고고도

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한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중구 회현동은 대교변에서 남산 조망권을 해치지 않고, 남산 인근의 과도한 개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의 상황에 따라 12m, 16m, 20m, 28m까지 세분화해 건물 고도를 제한하고 있다.

회현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0여 년 전부터 동대문시장 쪽에 상권이 넘어가면서 남대문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고도제한 같은 규제가 아직도 이 일대에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 역시 "1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지역 시세는 3.3㎡당 1억"이라며 "고가공원 개장으로 인한 특수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역시 이 부근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계획상 고도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 개발을 유도하는 곳이 있고, 과밀화를 막아야 하는 곳이 있는데 회현동은 후자에 속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관내에 둔 중구 측은 "우리 구 역시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한 남대문시장 일대 활성화를 원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웅 기자 cogito@

추천 경매물건

용도	소재지	건물 (㎡)	감평가 (원)	최저 입찰가(원)	감평가 대비(%)	입찰 및 개찰일	경매개	사건번호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3 신정5차현대 501동 11층 1106호	114	5억7800만	4억6240만	80%	06월 14일	남부5	2016-12516
아파트	서울 도봉구 창동 826 북한산신원플러스 101동 4층 406호	111	4억9500만	3억9600만	80%	06월 19일	북부8	2016-16658
아파트	서울 은평구 대조동 59-20, -21, -50, -51 아이안 3층 303호	81	3억2000만	2억5600만	80%	06월 13일	서부5	2016-5883
아파트	서울 마포구 아현동 777, 779, 767, 774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2동 4층 403호	115	10억5000만	8억4000만	80%	06월 20일	서부4	2016-10861
아파트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3 에스케이북한산 시티 125동 13층 1304호	85	3억9900만	3억1920만	80%	06월 19일	북부8	2016-104821
아파트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721 푸른솔 롯데 101동 6층 602호	133	2억370만	1억6590만	70%	06월 12일	의정부6	2016-32691
아파트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81-3 1차 현대모닝사이드 205동 6층 601호	150	4억4000만	3억8000만	70%	06월 12일	성남1	2016-11815
아파트	경기 부천시 범박동 151-2 부천범박 힐스테이트5단지 503동 16층 1605호	123	4억2400만	2억9680만	70%	06월 13일	부천2	2016-54167
아파트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9동 10층 1003호	84	2억2900만	1억6300만	70%	06월 13일	인천10	2016-504829
아파트	인천 동구 송현동 66-26 동부 10동 15층 1505호	77	1억8400만	1억2880만	70%	06월 13일	인천10	2016-504515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73 신정5차현대 = 501동 11층 1106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11월 준공한 5개 동 361가구 단지로 해당 물건은 18층 건물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14.2㎡, 방 4개 욕실 2개에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10여 분 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양천경찰서, 신정3동 주민센터, 신트리119안전센터, 신정3동우체국, 신정제일시장, 신트리공원 등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기초, 남명초, 신서중, 봉영여중, 목동고, 금곡여고, 양천고, 백암고 등이 가깝다. 최초감평가 5억78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 이번 경매 최저매각가는 4억6240만 원이다. 입찰은 6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 2016-12516.



만약엔 **녹십자**
제조원 한풍제약

피곤해도 함께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SMART 비타민D를 더해
더욱 강력해진 비맥스 골드**

SMART 비타민D는 물론 아연과 비타민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 빠른 활성형 비타민 비맥스 골드로 건강하게 빛나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활성형비타민
비오틴
50mg

칼슘흡수 및 뼈 건강에 효과
비타민D
1000 IU

아연의 보급
산화아연
30mg

피로해소를 위한
비타민C
200mg

SMART 기능성비타민제
비맥스 정
골드 B-max Gold tab.

광고심의필 : 1289-17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자산운용 강자 피델리티 “디지털통화 선구자 될것”

디지털 통화가 세계 금융 1번지 월가의 비즈니스 방식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있다. 이 회사의 아비게일 존슨 최고경영자(CEO·55·사진)는 23일(현지시간) 디지털 통화 자산운용의 선구자가 되겠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 회사가 연금과 저축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강점을 가진 회사라는 점에서 월가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는 평가다.

이날 뉴욕에서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아비게일 CEO는 피델리티의 주종목인 뮤추얼펀드나 연금 설계 대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평상시 공식 석상에서 언설하는 것을 꺼리는 아비게일 CEO가 지난해 회장직을 겸하게 된 이후 첫 공개연설이라는 점에서 월가의 관심이 쏠려 있는 터였다. 피델리티는 미국 2대 뮤추얼펀드로 운용자산 규모는 2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약 2600만 명, 2만3000개 회사의 연금과 저축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아비게일 CEO는 “누군가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궁금해할 것”이라면서 “내가 이것을(가상통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왔으며 이것은 미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비게일의 이러한 확신에 찬 표현은 월가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평가했다. 특히 연금과 저축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강점을 가진 자산운용사로서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2009년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후 가상통화에 대한 대



아비게일 CEO 공개석상서 “가상통화 미래가치 제고 컴퓨터뱅크도 설립할 것” 구내식당 비트코인 사용 독려

보수성 짙은 월가 가상통화 재평가 이어져

중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보수성이 짙은 월가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장점과 혜택에 대해 여전히 회의론이 크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태생 자체가 금융시장이 아니라 IT 업계, 즉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괴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손에 개발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감도 작을한다. 하지만 최근 월가에서도 아비게일처럼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3년 전 비트코인을 “가치로서는 최악”이라고 평가했던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블록체인 기술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아비게일 CEO는 월가의 비트코인 선구자로서 그 시작은 직원들의 비트코인 사용 독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구내식당에

서 직원들이 식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만간 피델리티 웹사이트에서도 비트코인 자산 추이를 볼 수 있도록 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회사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복잡한 알고리즘을 다루는 컴퓨터뱅크 설립도 준비하고 있다.

아비게일은 “내 컴퓨터가 20만 사토시를 채굴했다”면서 전문적인 용어까지 써가며 비트코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 이름에서 따온 가상통화 단위로, 1비트코인의 1억분의 1을 뜻한다. 아비게일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 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앞으로 개방형 플랫폼에서 거대한 새로운 시장과 제품이 구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상통화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며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아비게일도 비트코인이 규제와 보안, 기술적 문제 등으로 아직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최근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위너크라이’ 랜섬웨어도 해킹 피해자에 3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비게일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자 친화적이며 보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알파고’로 中 재진입 노리는 구글, 버티는 中

구글, 알파고-커제 바둑 대국 진행
중시장 철수 7년만에 다시 두드러
AI서밋 개최 등 중국 시장 공략
中당국, 대국 생중계 불허 ‘美 경제’



중국 우전에서 23일(현지시간) 커제(왼쪽) 9단과 구글의 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오른쪽)가 대국을 벌이고 있다. 우전/AP뉴스

2010년 중국 검색엔진 시장에서 철수한 구글이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로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워낙 완강해 문이 열리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23일(현지시간) 알파고와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커제 9단의 바둑 대국이 열렸다. 3000년 전 바둑을 탄생시킨 중국에서 최정상 프로 바둑기사와 알파고의 두 번째 대결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알파고와 커제의 대국 생중계를 불허해 시장 진입을 노렸던 구글을 낙담시켰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지난해 구글 산하 AI 스타트업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는 우리나라의 이세돌 9단에 4대 1 승리를 거둬 AI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컴퓨터가 세계 바둑 챔피언을 꺾은 것은 당시에 처음이었다. 알파고는 이날 대국에서도 커제 9단에 낙승을 거두면서 AI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시켰다.

구글은 2010년 중국 당국의 검열에 반발해 검색엔진을 철수시킨 다음 다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행사

에도 구글은 공을 들였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지난 해 이세돌 대 알파고 대국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참석해 행사를 지켜봤다. 구글은 또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알파고 대국 이외 AI 서밋도 개최했다. 이는 중국 시장 철수 후 구글이 7년 만에 가장 큰 공개 행사를 현장에서 개최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알파고는 바둑의 고향 중국에서 구글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됐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공동 설립자는 “중국은 수억 명의 바둑 팬이 있으며 AI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에서 외출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 정도는 열광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바둑 팬들은 자국에서 반발해 검색엔진을 철수시킨 다음 다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번 행사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중국어 장조한 바둑을 놓고 중국인 마스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벤트에서 대국을 치르는데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생중계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퀴츠는 중국 언론들이 정부로부터 알파고 기사에서 구글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부는 아직 시장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구글의 이름이 중국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AI에서 미국을 최대 라이벌로 간주하는데 미국 기업인 구글이 자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커제와 알파고는 25일과 27일, 두 차례 더 대국을 펼친다.
배준호 기자 baehj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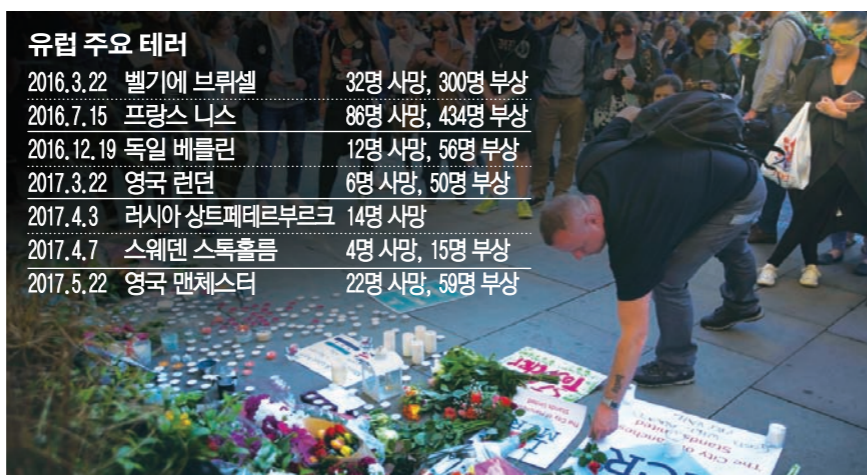
총선 유세 올스톱… 충격에 빠진 메이 총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런던 총리 관저에서 전날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날 TV 생중계된 연설에서 테러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위태로운(critical)’으로 격상했다. 런던/신화연합뉴스

영 맨체스터 아레나 테러, 유럽 관광산업 타격

최근 2년간 유럽 테러 잇따라
작년 프랑스 관광객 5% 감소
루브르 박물관은 21%나 줄어
1분기 18% 증가 영 위축될듯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22일(현지시간) 발생한 폭탄 테러로 유럽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유럽이 테러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유럽 관광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22일 발생한 테러로 22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시장조사기관인 호퍼의 패트리 서리 여행 데이터 전문가는 “이런 테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심적 동요를 일으켜 해외 여행을 꺼리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테러가 일어난 지역은 일부임에도 유럽에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독일 베를린,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와 니스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테러가 빈발했다. 관광업은 직접적으로 테러의 영향을 받았다. 국제연합(UN) 산하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작년 1-9월 프랑스를 찾은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5% 감소했다. 프랑스를 여행하는 관광객의 총 지출액은 전년 대비 6.6% 줄었다. 서

유럽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던 중에 갑자기 프랑스 방문객이 감소세로 돌아선 탓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중 하나인데 지난 2년간 방문객 수가 21% 줄었다고 밝혔다. 루브르 박물관 관계자들은 “2015년 11월 파리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 테러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관광산업은 올해 전망이 밝았다. 작년 6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브렉시트는 호재였다. 올해 1-3월 영국의 국외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22일 발생한 맨체스터 테러로 영국의 관광산

업이 성장 둔화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로모니터는 맨체스터 테러가 발생한 직후 올해 영국을 찾는 관광객 수 예상을 전년 대비 5.1% 증가에서 4.9%로 0.2%p 하향 조정했다. 유로모니터의 카롤린 브랜너 여행 전문 애널리스트는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관광객 증가율 전망치를 소폭 하향한 것”이라며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브랜너 애널리스트는 “영국 당국이 취하는 후속 조치에 따라 여행자들은 계속 영국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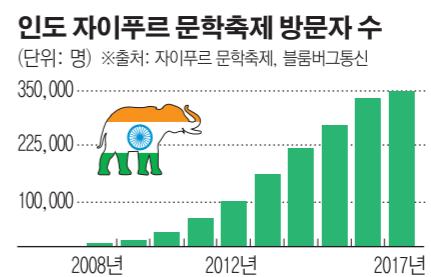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 경보 수준을 ‘심각(severe)’에서 ‘위기(critical)’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메이 총리는 당분간 ‘위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테러 공격에 대비하고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중인아시아

전성기 맞은 인도 출판업

경제 성장하면서 문맹률 개선... ‘책 사랑’ 인도인 증가

인도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인도 출판업계도 전성기를 맞았다. 2년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대를 기록하는 등 높아지는 경제 수준과 함께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책’을 사랑하는 인도인이 늘고 있다고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장규모 67억6000만 달러
교육 관련 책 19% 성장 전망
책 제목 ‘인도’ 들어가면 히트

시장조사기관 넬슨은 인도의 출판업 규모가 67억6000만 달러(약 7조5962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교육 관련 서적으로 따지면 2020년까지 출판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9.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출판업체 하퍼콜린스의 아나스 파드마나한 인도 사업부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는 경제 성장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업을 하기 좋은 곳”이라며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더 많이 학교에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드마나한 CEO는 “나라의 경제 성장은 출판업의 성장을 좌우한다”며 “경제가 성장할수록 비즈니스와 정치 관련 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책 제목

전자상거래의 부상도 인도 출판업에 매 증가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인도 전자상거래업체 플립카트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이베이, 텐센트로부터 14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플립카트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6년 10대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창업 기업)에 인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플립카트는 원래 아마존처럼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창업 10년 만에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부 주도로 문맹률을 낮추고 진학률을 높이는 정책도 출판물 수요 확대에 기여했다. 다만 대부분의 매출이 영어로 된 서적에서 나온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인도는 다언어 국가로 인도 전역에 180종이 넘는 언어와 500개 이상의 방언이 쓰인다. 넬슨의 비크란트 마투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 판매 책임자는 “인도 중산층이 영어를 선호하는 게 판매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넌 누구니?

위험한 천적이 많은 바다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The First Penguin '판권'이에요!

벌써 800만 고객이 가입한 신한 FAN! 새롭고 즐거운 서비스를 저 판권과 함께 즐겨보세요 ㅎㅎ



볼래요? 놀라운 생활의 결정판 FAN

판권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건, 판을 바꾸는 일!
언제나 앞선 생각으로 고객이 원하는 생활의 판을 만들어내거든요
공연, 맛집 예약은 물론 운세, 판툰에 포인트 적립까지 한 판에!
이제 판권이 안내하는 놀라운 세상을 신한 FAN에서 함께 하세요

내 손안의 생활 플랫폼
신한 FAN 판



[맛집예약]



[여행예약]



[운세]



[공연예약]



[FAN클럽]

신한 FAN이란?
간편 결제서비스를 넘어 금융과 생활, 생활과 생활이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2,200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한카드 FAN프렌즈와 함께 생활의 판을 바꿉니다

판권?
신한카드 FAN의 새로운 캐릭터로, 남들이 가지 못한 새로운 디지털 바다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First Penguin을 상징합니다
판권의 하트모양 얼굴은 따뜻한 마음을, 둥그랗고 뚜렷한 눈은 지혜로움과 통찰력을 상징하며, 또한 판권은 파란색 수트를 입으면 Hero로 변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 카드사

BIG to GREAT 신한카드

“기존 기계에 모듈만 붙이면 스마트工場 되죠”

‘임베디드 컨트롤러’ 만든 김민규 빛컨 대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스마트공장으
로 전환을 권장하고 지원하면서 기업들
이 속속 스마트공장에 나서고 있습니
다. 그런데 대기업이야 한 번에 수십억
원씩 들어 기계를 바꾸고 전체 공정을
스마트화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
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간단하고 저렴하
게 스마트공장으로 바꿀 수 있는 장비
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만
난 임베디드 컨트롤러 전문기업 빛컨의
김민규 대표(37)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들로 스마트공장을
해야 한다”면서 “빛컨이 붙이기만 하면
스마트공장이 되는 모듈을 개발한 이
유”라고 설명했다. 기존 기계에 부착한
모듈은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제어
할 수 있으며 가격도 대기업의 10분의 1
수준이면 가능하다.

공장 자동화, 이른바 ‘스마트공장’을
위한 핵심 설비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컴퓨터를 이용한 순차
제어기)로, 몇몇 대기업들의 독점 품
목이다. 공급자 몇 곳이 정해져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장비까지 패키지로 판매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터무니 없이 비
싼 가격이라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대표는 “현재 스마트공장 설비를 보
급하는 회사들은 고가 설비를 소품종
대량생산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판매
하고 있는 반면 빛컨은 100개의 맞춤형

비용 대기업 10분의1 수준
PC·모바일로 간단히 제어

다품종 소량생산 모델로
중소 생산성 향상 도와

작년부터 업계 수요 늘어
최대 300개種 개발 목표

컨트롤러를 개발해 1000군데 중소기업
공장에 판매하는 다품종 소량생산 모
델로 중소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빛컨은 그의
두 번째 창업이다. 그는 빛컨 이전에 10
여년간 각종 산업용 기계 장비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맞춤형 컨트롤러를 수
백 개 개발해왔다. 2005년 첫 사업을 시
작한 그는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개발 용
역을 수수하면서 임베디드 컨트롤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다. 포장 업체가
진공포장 기계 제어장치를 만들어 달라
고 하면 만들어주고, 식품기계 업체가 오
븐 제어장치를 요청하면 만들어주는 등
첫 사업이 잘 풀렸다. 2009년 정부 연구
개발(R&D) 사업에 신청해 무선온도 컨
트롤러를 개발한 후 정부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2년엔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김민규 빛컨 대표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붙이기만 하면 스마트공장이 되는 모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매년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열어
오던 한화그룹과 손잡고 이전까지는 수
입해오던 불꽃 발사기 제어 모듈을 공동
연구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첫 회사를
이어받은 빛컨은 현재 이 발사 모듈을 보
완해 2018년 평창올림픽에 사용될 불꽃
발사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다.

빛컨의 모듈은 지난해 말부터 업계
의 수요가 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프
랜차이즈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양조
기업 배상면주가와 손을 잡고 프랜차이즈
내 막걸리 발효기마다 제어 컨트롤러
를 설치하고 웹서버 구축과 모니터링 시
스템과 앱을 개발하는 원격제어 통합시
스템 구축을 수주했다. 수요 확대로 공
장을 새로 짓고 있는 잔디리마을공동

체농인법인도 두유와 두부를 생산하는
공장 자동화 라인 전체를 빛컨에 발주
해 6월부터 구축에 들어갔다.

빛컨은 지난 4월 일본 법인을 설립, 현
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모드링크 판
매 유통망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오는 9월에는 키스타터
등록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모
듈의 종류를 보다 확대 생산할 계획이
다. 김 대표는 “현재 제어 하드웨어에 들
어가는 모듈이 총 30여 종인데 앞으로
300여 종까지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에는 평창올림픽 불꽃 발사기까
지 가세해 매출 목표를 100억 원까지 기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전효삼·사진/이동근 기자 gradually@

한국여성 인물사전

(118) 남평 조씨(南平曹氏)

병자호란 때 한글 日記 남긴 양반 부인

남평 조씨(南平曹氏·1574~1645)는
‘병자일기(丙子日記)’라는 한글 일기
를 남긴 양반 여성이다. 일기에는 1636
년(인조 14) 12월 병자호란이 발발해
피란을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640년 8월까지의 일상이 담겨 있다.

아버지는 조경남이며 어머니는
남원 윤씨다. 열일곱에 남이옹(南以
翁·1575~1648)과 혼인했다. 남이옹은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호종(扈從)해
남한산성에 들어갔으며, 전쟁이 끝
난 후에는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
림대군(鳳林大君)이 청 수도인 심양
(瀋陽)으로 볼모로 끌려갈 때 따라
갔다. 그 후 고국에 돌아와 우의정까
지 올랐고 이에 따라 조씨 부인도 정
경부인이 되었다.

피란살이 동안 조씨는 남편이 고
국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노심초
사했다. 조씨는 “언제 영강 나오실
까 하는 근심으로 항상 숨이 막히는
듯”했다.(1637.11.6) 남편이 귀환한다
는 소식을 듣자 “오시(오전 11시~오
후 1시)쯤 되어 대소가 들어왔는데
영강 행차가 열여섯 날 평안하게
한양으로 들어오셔서 임금님께 숙
배하셨다고 하니 이 기쁨이 어떠하
겠는가?”하고 적었다. (1638.5.22)

조씨는 집안 대소사는 물론 농사
일을 경영하며 건실하게 가계를 꾸
렸다. “종들에게 가래 하나, 쇠스랑
세 개 만들게 하고 바지(把子)·대나
무나 갈대 등을 받쳐럼 엮어 만든
울타리(를) 세우게 했다”(1638.3.7) 그
리고 전쟁을 겪은 후여서 “또 들으니

남쪽의 왜 소식이 좋지 못하다 하니
앞날 일이 어찌 될 줄을 알지 못해
그지없는 회포라 하겠다”고 나라 정
세에도 관심을 보였다.(1638.1.1)

조씨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을 낳았
으나 모두 일찍 죽었다. 그래서 나이
예순이 넘어서는 “이렇게 외롭고 고
단할 때에는 더욱더욱 생각”나는 자
식들이었다.(1638.3.22) 그중 스물다섯
이 죽은 아들 남두상에 대한 그리움
이 컸다. 남두상은 첫 부인과 상처한
후 다시 장가들었는데 그 며느리마
다 저지서 없이 일찍 죽었다. 그래서 조
씨는 아들과 두 며느리의 기제사(忌
祭)를 꼬박꼬박 지내주었다. “꿈에
여주 며느리를 보았다. 불쌍하도다!
다들 어디로 갔는지? 신주들만 보면
장자가 끊어지는 듯하다”면서 며느
리들을 그리워했다.(1637.11.13)

조씨는 서지(庶子) 천남에 대한 감
정도 남달랐다. 천남이 일을 보기 위
해 잠시 떠나 있게 되자 “넌들 저를
잡자처럼 여기며 저인들 나를 큰
어머니라 하라? 이렇게 높고 병 속
에 있으니 다시 보지 못할 듯하니 마
음이 그지없다”(1640.4.26)고 천자식
같은 애정을 보여주었다.

조씨의 일기를 읽다 보면 새삼 기
록의 힘을 깨닫는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잠깐 접고 조씨
의 ‘작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평범한 일상이 역사로 바뀌는 순간
도 음미할 수 있다. 그 사소한 일상들
이 모여 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정재승 교수, 이화여대 강연

이화여대
사범대학은
사범대 조
대 학장 인
김애마 선생
의 이름을 딴
학술강좌
'애마 렉처
2017'(Emma
Lecture)를
26일 오전 11
시 서대문구 교내
교육관에서 개최
하고 24일 밝혔다.
올해 애마 렉처에
서는 과학 분야 베
스셀러인 '과학콘서
트의 저자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 및 뇌공학
학과 교수를 초청
해 '인공지능과 뇌공
학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
제의 강연을 연다.
올해의 강연은
정 부회장을 비롯
해 신세계그룹 계
열사 대표들도 방
문할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2015
년 처음 개최돼 올
해로



“지속적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용진 부회장, 올해도 1만5000명 이상 뽑는다

(신세계그룹)

31일 고양 킨텍스서 채용 박람회
14개 계열사·88개 파트너사 참여
스타필드 고양 채용관 별도 마련



3년째, 횡수로는 5회
째다. 작년에는 2월
부산, 6월 서울, 10월
대구 등에서 세 차례
열렸다. 이러한 신규
일자리 창출 노력에
힘입어 신세계그룹
은 2015년 1만4000명, 작년에는 1만5000
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에는 전년 규
모 이상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박람회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신
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푸드, 신세계건
설, 신세계이앤씨, 스타벅스커피코리
아, 신세계조선호텔, 신세계사이먼, 신
세계엘앤비,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위드미, 신세계티비쇼핑, 신세계프라퍼
티 등 총 14개 계열사를 비롯해 매일유
업, 메가박스, H&M메네스앤모리츠, 유
니클로, 청우식품, 할리데이비스코리아,
동원F&B, 동아쏘시오그룹 등 88개 파
트너사들이 참여한다.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
는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
되는 스타필드 고양점 오픈을 앞두고 고
양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구직자를 위
해 스타필드 고양 채용관을 별도로 마
련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또
이마트와 스타벅스, 조선호텔 장애인
채용 등 소외계층 채용뿐만 아니라 이
마트위드미 편의점 점주 채용, 이마트
전문점 청년채용 등 특화된 채용도 병
행할 방침이다.

한편 행사 당일 전문 사진작가가 이력
서에 필요한 사진을 무료로 촬영·인화
해서 제공한다. 이마트위드미에서는 커피
를 무료로 제공하고 캘리그라피 행사
를 하는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제
공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인사

◆인천항만공사 △감사팀장 이정필 △
TOC통합특임팀장 조종화 △신국제어
센터팀장김성철 △특임팀장 김영복 △인사관
리팀장 안길성 △기획조정실장 김순철 △경
영지원팀장 윤상영 △미래사업팀장
조충현 △홍보팀장 김성철 △물류전략
실장 김종길 △글로벌마케팅팀장 김영
국 △항만관리팀장 신용주 △물류단지
관리팀장 박무동 △물류정보팀장 박성
재 △항만개발실장 김성진 △항만시설팀
장 신재홍 △감문정비팀장 이원홍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제조로봇연
구본부장 홍성호 △ICT 로봇융합연구
센터장 최재현 △머신인텔리전스연구
센터장 황희선 △경영지원실 인사구매
팀장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승진) △방송
미디어연구실장 이종원 △경영전략연
구실장 조성은 △행정실장 광성근 (전
보) △감사심사국장 고병철
◆서울대 △대학신문사 부주간 우종학

여의도 밤섬지킴이로 변신한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및 임직원들이 23일
여의도 밤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환
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사내 봉사단 ‘그린메이커’ 출범
직접 외래종 식물 ‘가시박’ 제거
“환경보전 위해 사회공헌 활동”

LG화학은 23일 밤섬지킴이 봉사단인
‘그린메이커(Green Maker)’를 출범하고,
박진수 부회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임
직원이 서울 여의도 밤섬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와 환
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LG화학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기획한 신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옴은미래, LG화학이 그
리는 그린(Green) 세상’이라는 공익 명
칭으로 진행됐다. 유엔(UN)이 지정한 5
월 22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과 연계
해 도심 속 생태보존 및 환경문제 해
결을 위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에 나선 것

이다.
이날 그린 메이커 봉사단은 밤섬의 생
태환경을 위협하는 외래종 식물인 ‘가
시박’을 중점적으로 제거했다. 가시박은
왕성한 생명력과 지나친 번식력으로 다
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주변 식물
을 질식시키는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
물이다.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은 “본사 인근
생태환경 보전지역인 밤섬의 환경을 지
키고 생태계 보존에 직접 기여할 수 있
어 매우 뜻 깊은 활동이었다”며 “앞으
로도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내 대표 화학기업으로서
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올해 총 4회에 걸쳐 밤섬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생
물 다양성 관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을 발굴해 진행할 예정이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관립추진협의회

“여성의 눈으로 서울의 역사 공부해요”



(사)역사여성미래가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여성사 강사양성 및 서울여성역사지도만들기’ 개강식이 23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 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수강생들은 9월19일까지 진행되는 여성역사 강좌와 서울의 다양한 유적, 유물 탐사 등을 통해 여성의 눈으로 서울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유적과 유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붙이게 된다. 이날 수강생들이 정현백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역대 최다 007 제임스 본드’
할리우드 배우 로저 무어 별세



이 사망했다는 무거
운 소식을 전하게 됐
다. 우리 모두 슬프
다”라고 밝혔다.
무어는 손 코넬리,
조지 라렌버의 뒤를 이
어 45세에 3대 제임스
본드에 올랐다. 그는 1973년 007 죽느냐사느냐
야로 본드 역할 첫선을 보이고 나서 1985년
‘뷰 투 어 칼에 이르기까지 12년간 7번의 본
드 시리즈에 출연해 역대 최다 제임스 본드
로 이름을 남겼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영국 영화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 로저
무어가 23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9세.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무어의 가족
은 이날 트위터에 “고인이 짧은 암 투병
끝에 숨을 거뒀다”며 “가장 무거운 마
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로저 무어 경

부음

▲김장환(한국암웨이 부사장)·봉환
(공영건설 대표이사)씨 모친상, 구천회
(천지건설 회장)·이재상(동서부동산개
발 대표이사)씨 장모상 = 23일, 청양 농
협장례식장, 발인 25일, 041-942-4600
▲노재춘·재하·성화·명희·재윤씨 부친
상, 김영호(신한카드 부사장)·이상근(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사업단장)씨 장인상 = 22
일, 경북대병원, 발인 25일, 053-200-6464
▲박시중(전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
구원장)·시중(레스파스 대표)씨 모친
상 = 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
2258-5940
▲오철호(광주 남부경찰서 수사과장)
씨 부친상 = 23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
인 25일, 062-612-8366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심의필: 2017-1498
유효기간 만료일: 2017.04.25~2019.03.31

내 금융생활을 손쉽게 풀어주는 만능키 NH농협은행 올원뱅크

간편송금부터 더치페이, 여행자보험, 대출, 카드까지
올원뱅크만 있으면 모바일 금융의 모든 것이 편해집니다

은행을 손쉽게! 올원뱅크



올원뱅크 시작하기!

올원뱅크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올원뱅크를 검색해 보세요

1 쉽고 빠른
간편송금

계좌번호 몰라도 OK!
연락처만으로 송금!
수수료 무료!

+ 그룹송금/간편대출

2 모임하고
더치페이

친구들과 모임!
식사 값은 더치페이로
간편하고 센스있게~

+ 경조금 송금

3 카드없이
ATM출금

지갑을 놓고 나왔을 때?
걱정은 이제 그만!
휴대폰만 있으면 OK!

+ 바코드 결제

4 기부, 모임,
동호회까지
나만의 은행

축제/공연정보 someday
기부/모금 더불어
모임/동호회 운영 모아

+ 오토론/여행패키지

NH농협은행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스마트금융센터(1600-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017-1498 (2017.04.25~2019.03.31) *NH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개발상품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열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민속으로, 국민곁으로



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가업승계·가사소송팀 변호사



유류분(遺留分) 반환을 피하는 방법

우리 민법은 망인(亡人)이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큼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1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상속인은 아들 2명만 있다고 가정하자. 만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차남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5억 원)의 2분의 1인 2억 5000만 원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유류분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 개시 시의 가치로 모두 더하여 계산하므로 훨씬 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속인으로부터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에 어서 망인이 생전에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 두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확인서를 쓴 상속인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이 일어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상속인들이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의 내역, 규모 등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면, 상속 이후에 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를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속인에게 유류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 미리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유류분은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한 재산의 가치가 망인의 사망 당시에 비교해 크게 변했다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유를 법이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와 수증자(受贈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류분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실제 필자가 하는 상속 상담 중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다. 혼인 외의 자녀들이 있거나, 망인이 생전에 아들과 딸들을 차별 대우한 경우라면 유류분이 문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 반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망인이 살아 있는 동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

최중찬 칼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非합리적인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권

는 헌법학계의 견해도 있으나 과거 모든 대통령이 형식적이나마 이 규정을 지켜왔다. 물러나는 국무총리에게 장관 제청을 부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이지만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 부분 도입하였다. 헌법 제87조는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국무총리를 두고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하였다.

국무위원 임명 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 헌법 87조 규정은 합리적인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법 제87조는 타당성도 없고 비현실적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라고 하면서 장관 임명을 독자적으로 못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 것은 책임은 지우고 권한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국민이나 국회가 선출한 사

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국무총리의 천거는 참고할지언정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헌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정관대로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약한 대통령이다. 사실 국무총리는 국정에 대한 책임 의식이나 각 분야의 인재에 대한 정보가 대통령보다 떨어진다. 현재의 제도는 대통령이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미 대통령 인사권의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는 필수이고, 장관 임명 시에도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을 형식적이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한다. 임명받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역대 대통령 중 헌법 규정을 지킨 이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지키지 않는 헌법 규정을 만들어 쓸데없는 고

생을 하는가? 이는 결국 준법정신만 해친다. 따라서 향후 개헌 시 고쳐야 한다. 차제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장관, 차관 등 주요 공직자와 주요 공공기관장 등 국정 운영에 핵심적인 보직은 책임행정 차원에서 정부직으로 분류하여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보급 이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정부직 외의 인사는 국무총리와 장관, 공공기관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 공직 기강을 명분 삼아 중간 간부의 인사까지 청와대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공모제도 '무늬만 공모제'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핵심적인 보직은 임명제로 하고 나머지는 명실상부한 공모제를 해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는 명분으로 국정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

기고

전삼구

한국핀테크플랫폼포럼의장 더블체인 대표이사



人間化한 블록체인을 서두르자

워크망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리플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세계 은행들의 새로운 송금 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전환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조차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상화폐 수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정보통신 분야를 크게 육성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신산업 촉진에 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은행과 금융권 회사들의 고민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비, 즉 자산과 보안인력과 함께 중앙 서버와 보안솔루션, 방화벽을 갖추고 갖가지 외부의 해킹에 대비하는 것이었지만 외부의 해킹 못지않게 내부자로부터의 각종 범죄도 만연했다. 관리자가 마음먹고 조작한다면 그 기업의 치부를 드러낼 뿐 아니라 정보를 빼내는 데 한계도 없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내·외부 통제와 조작이 불가능해 그 자체로 보안성이 우수하고, 막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분산 정부 기술로 인해 거래 상황을 모두 대조 확인하고,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s) 기능을 통해 진실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먼저 주목받았지만, 이제는 사물인터넷 환경, 즉 IoT 건물 출입시스템과 자동차 제어, 유통업 등까지 응용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진가가 발휘되고 있다.

2000년대 초, 텔넷 기반의 PC통신에서 WWW 기반의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전이됐듯이, 초연결사회가 눈앞에 온 만큼 인터넷 환경도 블록체인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도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행과 영국은행은 가상화폐의 합법화를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이 움직임에 동참해 법제화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 AI 등 신산업의 융·복합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은 매력적인 핵심 기술 매개체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IoT는 이미 현실화한 상태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 좀 더 진화하고 인간화한 지능형 블록체인, 즉 '휴머니이드(Humanoid) 블록체인'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알송흙 달송흙, 온라인 외글와글은 오늘 쉽니다.

카드로 보는 세상



"아이가 배탈이 났다면 숯가루를 먹이세요", "화상 입은 아이에게 뜨거운 찜질을 해주세요"... 황당한 이 치료법은 '안아키'라는 육아카페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안아키'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이름 그대로 자연적으로 치유해 면역력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작된 '자연치유' 바람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치료법이라, 부작용에 따른 아동학대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AovBGQ>



도깨비골프

Enjoy your long iron

www.dbgolf.com

아이언의 고정관념을 날려버린 신개념 도깨비아이언 DBG111 탄생



이제 5번 아이언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8번부터 5번까지 모두
길이와 헤드크기가 같기 때문이다.

제품문의
1899-9030

#5~#8번 길이, 헤드 사이즈 동일

#5, #6, #7, #8번은 일반 아이언과 같은 스펙으로 만들고 #7, #6, #5번은 #8번 아이언과 같은 길이입니다. 헤드의 크기는 #8, #7, #6, #5번이 모두 같은 크기입니다. 아이언의 라이너가 모두 같아서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었으며 아이언의 무게도 #8, #7, #6, #5번 모두 같습니다. 또한 어드레스시 모두 같은 곳에 볼을 위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아이언의 스윙플레인(스윙궤도)이 같습니다. 결국 마음의 부담없이 모든 아이언을 편하고 정확하게 실수가 적은 스윙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미나(주)AUTO POWER 샤프트 사용

AUTO POWER 샤프트 프로
신지은프로, LPGA 지은희프로, 최나연프로, 신지은프로, LPGA 2017투키 Emily Tubert, LPGA 전설 낸시로페즈 등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16년 5월 텍사스 스타아웃 대회에서 신지은 프로가 LPGA 첫승을 할 때 오토파워샤프트를 사용하여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원조 정타자 김태현 프로와 많은 KPGA 프로들이 사용하고, KLPGA의 지원샤프트로, 주은혜프로, 김규리프로, 이수현프로, 김우정프로, 조아라프로 등 수백명의 프로들이 사용하여 새로운 골프강자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

데스크칼럼

‘문재인 매력자본’

김수연
온라인뉴스부장



몇 년 전 배우 조지 클루니가 유명 인권 변호사와 결혼했을 때 그가 대권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람둥이로 알려진 할리우드 최고 석사남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일부 매체들이 그가 2016년 출마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내놓았으나, 아찔했던 시간이 흐른 지금 김 찻국(?)부터 마신 셈이다.

돈급없는 조지 클루니 타령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털어놓자면, 2003년 당시 문재인 인권변호사가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에 발탁돼 얼굴을 내비치기 시작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조지 클루니 닮은 사람(‘뽀 소리래’ 하는 이들이 많을 줄 안다)’이란 이미지가 박혔었다.

최근 들어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됐다. 취임 초 대통령 외모 얘기가 연일 화제거리로 떠오르면서 ‘조

지 클루니’를 언급하는 댓글도 꽤 등장했고, 대놓고 “잘생겼다”부터 “한정사상 최초 미남 대통령”이란 오글거리는 반응까지 있었다.

‘남의 나라 잘생긴 지도자’를 흠모하는 덴 사드 장벽도 걸림돌이 아니었다 보다. 중국 웨이보에 개설된 문 대통령 팬클럽은 구독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별이별 사진은 물론 이모티콘 이미지와 등산 후 마셨던 생수 브랜드까지 나와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왜 문재인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그들은 “문 대통령이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배려, 소탈한 행보 등을 알고 있다”며, “그것이 팬이 될 이유”라고 설명했다.

‘매력’이란 힘이 세다. 2013년 영국 사회학자 캐서린 하킴(Catherine Hakim)은 430페이지짜리 두툼한 ‘매력 자본(Erotic Capital)’이란 책에서 매력을 개인이 갖는 ‘제4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상세히 설명했다. (참고로 1, 2, 3의 자산은 경제·문화·

사회 자본, 즉 돈·교육·연줄이다.) 하킴은 ‘매력 자본’의 요소를 아름다운 외모와 성적 매력, 인간 관계, 활력, 웃음, 스타일, 섹슈얼리티 등을 아우르는 신체적인 매력과 사회적인 매력이 혼합된 것으로 봤다. 이 책은 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성공하며, 그런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에 대한 최근 인기를 보면서 이런 개인의 매력 요소에 ‘공감’을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킴이 지적했듯 매력 요소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요즘처럼 ‘내 맘을 알아주는 이’가 절실한 사회에서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야말로 ‘매력적인 사람’이다.

공감 능력이 월등한 사람은 어디서든 돋보인다. 갈등을 짊어내고, 감정적인 공유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2주간 보여준 행보가 그렇다. 셀카를 요청하는 이들에게 스스로없이 미소를 내어주는 것을 비롯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나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을 안아주는 모습은 그에게 열광하고 의지하며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의 표현이다.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의 매력도 마찬가지이다. 보톡스나 비타민주사 따위의 얘기가 아니다. 대통령이 공감의 매력을 발휘해야 할 분야는 앞으로 쉬지 않고 등장할 것이다. 실업자의 눈으로, 생활에 지친 가정의 눈으로, 억울하게 혈육을 잃은 이의 눈과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일이 태산이다.

그러다 보면 누가 아냐. 문 대통령의 공감능력이라는 ‘매력 자본’이 수백, 수천 조 단위로 쌓여 ‘헬조선’을 ‘갯한민국’으로 만들지.

사족(蛇足) 하나. ‘꽃준남 대통령’ 나라답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대통령 행보 사진도 좀 매력적이면 안 되나 싶다. 현재 4장의 사진은 너무 무미건조(無味乾燥)하다. 그런데 앞으로도 무미건조할까 봐 안타깝다. queen33@

양창균의 B하인드

정치경제부 차장



과잉규제 우려되는 ‘J노믹스’

2017년 5월 10일은 대한민국이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이 교체된 날이다. 2008년 2월 노무현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기점부터 9년 2개월 만이다. 정권 교체는 체제 변화와 함께 정책의 물길을 바꾸기 마련이다. 이 같은 속성 때문에 정권 교체 때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수정자본주의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이들은 오스트리아 태생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1899~1992)의 논리를 앞세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만(自慢)에 빠진 것이고,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하이에크의 영향을 받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대처는 자유시장경제를 내세워 영국 경제를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켰고, 레이건은 지금도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이에크 이론에 대적점을 이룬 경제학자는 영국 출신의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이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은 그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케인스는 1922년 ‘맨체스터 가디언’의 기고문을 통해 처음으로 케인스 진영 사상의 토대가 되는 ‘정부가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개입론을 제시했다.

이 같은 케인스식 이론은 1929년 미국 대공황이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케인스는 1929년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휩쓸면서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80여 년이 흐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케인스식 이론이 다시 재조명됐다.

우리 헌법에서도 케인스식 경제이론을 뒷받침하는 대목이 있다. 헌법 제119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가 균형있는 국민 경제 성장과 안정, 적정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 ‘J노믹스’에도 케인스식 이론이 가미됐다. 경기 침체의 원인을 유호 수요 부족으로 판단해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실업유감을 견고한 한국 경제에 적절한 처방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에 대한 부작용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재벌 개혁을 비롯해 골목 상권 보호 강화,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등과 같이 이와 관련된 대기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말이다. 더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과잉 규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든다.

모든 경제정책에는 명암이 존재하는 법이다. 그렇지만 위기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자칫 되살아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악재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는 2012년 방한 당시 “위기가 확대 해석돼 과잉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상황에 던져진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yangck@

객석

김강희 CJ제일제당 건강마케팅담당 대리



내 생애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

요즘 같은 시대에 딸만 셋이니, 우리 집은 딸 부자집이다. 엄마를 고생시키며 태어난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 5월 어버이날이면 항상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섰다. 딸들만 있는 집이라 선물의 역사가 꽤 다양하다. 가장 간편한 현금부터 정성 들여 직접 차린 음식 한 상까지, 다양한 선물을 마주한 엄마가 손사래를 치면서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평소에도 넉넉하게 챙겨 드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데 이번 5월은 다르다. 미리 드린 어버이날 선물 덕분에 엄마의 5월은 따뜻한,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

엄마가 아프셨다. 위(胃)가 많이 안 좋아졌다.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셨다. 대신 아들 수도 없고 속상하지만 그저 지켜보는 것 말고는 아프신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그때 느꼈다.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위에 좋은 제품’에 올인했다. 건강습에 약초까지 넣어주며 연구원들과 수많은 실험을 했다. 우리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도 맛있게, 편안

하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즙을 만들려 애썼다.

내가 담당한 제품을 엄마에게 선물로 드렸다. 통증 때문에 식사를 두려워하는 엄마에게 제발 효능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였다.

그동안 수많은 선물을 드려도 매년 손사래 치시던 엄마였는데, 이번 반응은 정말이지 처음이었다. “우리 강희가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었구나. 꼭 잘 챙겨 먹을게”라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나도 눈물이 핑 돌아 뒤돌아서 울었다.

“내가 만든 제품을 먹고 이제 조금씩 밥도 먹기 시작했어”라는 엄마의 문자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 가족을 행복으로 몰들인다. 앞으로도 찾아갈 때마다 엄마에게 잘 맞는 건강식품을 드리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보려 한다. 건강보다 귀한 선물은 없다. 돈이 최고라고 하지만, 평소 부모님을 위한 작은 건강식품을 챙겨 드리는 건 어떨까?

기자수첩

김우람 기업금융부/hura@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넘어

비트코인(Bitcoin)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새로운 통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대명사로 불린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암호화폐)’라는 상징성과 수년간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아성에 도전하는 새 가상화폐가 있다. 바로 ‘이더리움(Ethereum·이서리움)’이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그 자체’이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이더리움을 통해 블록체인 화할 수 있다. 이더(Ether)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구현하는 자원이란 셈이다. 물론 비트코인의 기능 또한 모두 포함한다.

비트코인이 계산기라면, 이더리움은 컴퓨터인 격이다.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예견되고 있지만, 그중 단연 이더리움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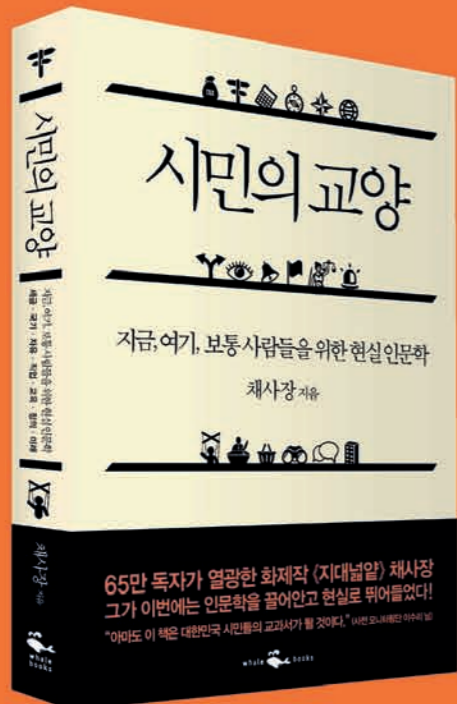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금융, 정보기술(IT), 에너지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한 블록체인 도입을 구상하고 실험 중이다.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JP모건, UBS 등이 함께 이더리움의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더리움은 기업에 종속되지 않은 개방적인 솔루션으로 누구든지 도입할 수 있고 원한다면 똑같이 흉내내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게 가능했다.

이더리움의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 예컨대 조작 불가능한 투표용지 판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최근 일어난 국제은행 간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Swift) 해킹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작 위험을 없앤 카지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삼성SDS가 유일하게 EEA 참여 기업이다. 스타트업 중에서는 코인플러그가 동참했다. 이들이 블록체인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을 응원한다.

방향을 잃은 한국 사회
시민은 무엇을 알고, 말하고, 선택해야 하는가?



똑똑한 시민이 세상을 바로잡는다

당신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어느 날 당신에게 빨간 버튼이 하나 배달되었고, 당신은 누르거나 누르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선택으로 국가의 미래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이 결정된다. 《시민의 교양》은 대통령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 선택을 결정할 국가의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나며 이야기는 뽀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대가 다양하게 부딪히는 사회 문제의 본질을 짚어본다. 자유란, 정의란,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가? 물론, 항구적인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실체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로서의 정의가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채사장, <시민의 교양> 중

삼성물산 래미안 개포(가칭)

교통·학군·시설 3박자 '강남 그린웨이' 프리미엄까지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구 개포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개포(가칭)'를 올해 하반기 분양한다.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31개 동, 전용면적 49~102㎡의 2296가구 규모다. 이 중 2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분당선 구룡역을 비롯해 양재IC와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서고속철도(SRT) 수서역이 개통돼 경기도 평택까지 2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 구룡초·개원초·개포중·개포고·경기여고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대치동



학원가도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생활편의시설도 가깝게 위치한다. 대모산-달터공원-양재천을 연결하는 '강남 그린웨이' 사업이 계획돼 있다.

개포지구는 강남권의 대규모 재건축 지역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5000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래미안 개포'는 지난해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2단지)'와 '래미안 루체하임(일원 현대아파트)'에 이어 삼성물산이 개포지구에 공급하는 세 번째 단지다. 앞서 지난해 3월 분양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정당 계약 8일 만에 분양이 완료됐다. 일원현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루체하임' 역시 평균 45대의 청약 경쟁률로 5일 만에 분양이 마무리됐다.

'래미안 개포'의 입주는 2020년 7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개포'를 비롯해 2490가구 규모의 부산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등 올해 총 6개 단지 901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불확실성 견히니

올해 금리 인상 등의 악재에도 식지 않던 분양 열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춤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고, 선거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건설사들도 대거 분양을 미뤘다.

선거가 끝난 지 2주 정도 지난 현재 분양시장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15만여 명이 몰렸고, 일부 지역에선 견본주택 입장을 위해 2-3시간 줄을 서기도 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쏠가구 '테라스' 설치... 국제·영재학교 인접 '新학세권'

현대건설이 6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 R1 블록에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지하 4층-지상 49층, 9개 동, 전용면적 84㎡의 총 2784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A 795가구 △84㎡B 447가구 △84㎡C 329가구 △84㎡D 269가구 △84㎡E 478가구 △84㎡F 266가구 △84㎡G 188가구 △84㎡H 12가구 등 총 28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단지 내 지상 1-2층 연면적 약 1만8000㎡ 규모(주차장 면적 포함)의 복합상업시설이 있으며,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전 가



구에 테라스(일반테라스 2~49층, 광복테라스 1~3층 별개동)가 설치돼 공간 활용이 우수하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는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거타운 내 자리 잡고 있어 조성 예정인 다양한 생활 인프라

를 한번에 누릴 수 있다. 우선 2020년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의 역세권 단지로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여기에 인천타워대로와 센트럴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도 좋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권에 있는 것을 비롯해, 채드워싱턴국제학교, 포스코자율형사립고, 인천과학예술체육학교 등 명문 교육기관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 홍보관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3 센트로드 B동 403호에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인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17(송도동 11-1번지)에 6월 개관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인천 논현 푸르지오

역세권·KTX 착공 호재... 소형 새 아파트 '귀한 몸'

대우건설은 인천 논현지구-한화지구의 논현동에서 '인천 논현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구역 내 공동 1블록 일대에 공급되는 이번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3~29층 아파트 7개 동, 전용 61~70㎡ 총 754가구 규모다.

'인천 논현 푸르지오'는 수인선 소재 포구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영동고속도로, 제2연고속화도로, 서울 제1·2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수인선과 연결되는 인천발 KTX가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인천대교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및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고, 서울역-강남역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인천 대표 명문 학군인 논현-한화지구에 입지한다. 도보 5분 거리에 소재초교가 있고, 논현초·중·고, 장도초, 고잔중, 미추홀외고와 명문 학원가 등이 가깝다.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등의 쇼핑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소래습지생태공원, 너른들공원 등이 인접한다. 소래역사관, 소래포구 수변관광, 남동문화예술회관 등의 문화 여가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논현 푸르지오"는 논현동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서는 데다 단지 인근에 입주한 지 10년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900만 원대, 최고 1100만 원대가 될 전망이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8번지에 위치한다. 청약 일정은 25일 1순위, 26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입주는 2019년 하반기 예정이다.

롯데건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드림키친·가족텃밭·생태연못... 입주민 '취향저격'

롯데건설의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26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87번지 일대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지하 4층-지상 29층의 20개 동, 총 1859가구 규모다. 이 중 867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고덕재건축단지 내에서는 올해 첫 분양 단지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비롯해 고덕재건축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신도시급 규모인 약 2만 가구의 타운이 형성된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고덕역이 인접하며 천호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해 지역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상일동산, 명일공원, 고덕천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 명일역과 올림픽공원을 잇는 숲산책 코스인 강동그린웨이(12.7km)가 단지 외곽을 둘러싸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상일여중·고가 위치

하고, 한영중·고, 한영외고, 고일초 등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1km 내에 학원가도 자리 잡고 있다. 이마트, 천호현대백화점, 강동아트센터, 강동경희대병원, 고덕사회체육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단지는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되며 주방 작업대, 싱크대의 높이를 선택하는 '드림키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지에는 생태연못과 수영시설 등을 비롯해 각 동 앞에 정원이 조성되고, 입주민 참여형 텃밭인 패밀리팜과 순환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견본주택은 상일동 18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9년 12월이다.

SK건설 보라매 SK뷰

음성으로 조명·난방 조절 '스마트홈 서비스' 눈길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 일대에서 '보라매 SK뷰'를 분양 중이다.

신길5구역에 재개발하는 '보라매 SK뷰'는 지하 2층-지상 29층, 18개 동, 총 15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4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 64가구 △70㎡ 27가구 △84㎡ 601가구 △100㎡ 36가구 △117㎡ 36가구 △130㎡ 27가구 △136㎡ 27가구로 구성됐다.

'보라매 SK뷰'는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이 강점이다. 7호선 보라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대방로를 통해 여의도까지도 10분 내에 갈 수 있다. 2022년에는 9호선 샛강역과 서울대역을 잇는 신림 경전철이 개통 예정이



고, 2023년에는 안산과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광역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교육과 편의시설 역시 우수한 입지를 겸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대방로를 통해 여의도까지도 10분 내에 갈 수 있다. 2022년에는 9호선 샛강역과 서울대역을 잇는 신림 경전철이 개통 예정이

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타임스퀘어·이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과 한림대 강남성심병원·보라매병원도 가까이 있다.

SK텔레콤의 음성 인식 스마트홈 시스템 도입도 눈에 띈다. 입주민은 음성 인식 AI기기 '누구(NUGU)'와 스마트폰을 통해 조명, 난방 및 가스밸브 조작 등의 기능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 SKT 스마트홈 로고가 있는 가전기기를 설치하면 원격으로도 제어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초 2년간은 무료로 SKT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라매 SK뷰' 입주는 2020년 1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84㎡ 기준 3.3㎡당 평균 1951만 원으로 중도금(분양가의 60% 이하후불제 조건)이 적용된다.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김해

청약경쟁 8.5대 1... 김해 신공항 개발 호재로 '엄지척'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해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김해신공항의 경우 몇 개 되지 않은 개발 공약 중에서도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김해 신공항 개발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김해시와 부산시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이 크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남 김해시 관동동 247-47번지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김해'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평균 5.22대 1, 최고 8.5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1순위 마감을 기록하기도 했다.



'힐스테이트 김해'는 지하 2층-지상 23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30가구가 구성된다. 이 중 80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분의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21가구 △59B㎡ 27가구 △59C㎡ 77가구 △84㎡ 50가구다.

'힐스테이트 김해'는 일대 아파트 단

지 중에서도 우수한 입지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지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잘 갖춰진 율하지구의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다. 단지 북측으로 반룡산을 바로 등지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김해의 신중 주거 중심으로 꼽히는 율하지구의 뛰어난 생활 인프라도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자리 잡은 율하지구는 택지지구로 조성된 만큼 상업 시설, 여가 문화시설, 관공서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인근으로 김해외고, 경상남도의 국어영재교육원, 율하중, 율하고, 덕정초, 김해기적외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동광종합토건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

"일단 4년간 살아보세요"... 先 임대 後 일반분양 전환

글로벌 레저브랜드 쉐넬리 그룹의 동광종합토건이 충청북도 충주시 서충주신도시에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를 분양 중이다.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는 지하 1층-지상 최고 15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534가구로 지어진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이하 중소형이 100%를 차지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 A타입 120가구 △59㎡ B타입 56가구 △84㎡ 358가구 등이다.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는 분양전환 선택 가능 민간임대아파트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간분양 임대아파트로, 일정 기간(4년) 내 집처럼 살아본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LH 임대



와는 다르게 특별한 소득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임대료 상승 없이 주거 안정성도 높였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 안전하다.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임대 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가 부과되지 않고, 4년간 거주 후 확정된 분양가격으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서충주신도시 오드카운티'가 들어서는 서충주신도시 3개의 대형 산업단지가 모여 조성된 충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다. 전국 4개 기업도시 중 최초로 완공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212만 평의 충주기업도시, 2010년 준공 후 100% 분양을 마친 61만 평 충주첨단 산업단지, 지난해 준공을 마친 55만 평 충주메가폴리스 등 3개의 산업단지도 구성된 곳이다.

모델하우스는 충주시 금동동 20-5번지(금동초교 인근)에 건립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18년 11월이다.

분양시장 구름인파

시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오르며,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 아파트는 0.36%의 변동률로 여전히 높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일반 아파트 역시 0.22%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0.11%) 대비 2배 확대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각종 정치 이슈가 이번 대선을 통해 단번에 해소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송파, 저가매물이 누적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팀



GS건설 그랑시티아이 2차

안산 신흥부촌 '고잔신도시' 위치...3370 가구 공급

안산의 주거 선호지로 주목받고 있는 고잔신도시의 중심에서 7653 복합도시의 완성을 알리는 단지가 들어선다.

GS건설이 선보이는 '그랑시티아이 2차'는 주거·상업·문화가 결합된 총 7653가구 규모의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잔신도시 90블록 일대의 미니신도시급 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14개 동, 총 3370가구 규모다. 이 중 아파트가 2872가구, 오피스텔은 498실로 구성됐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178가구 △74㎡ 135가구 △84㎡ 1873가구 △101㎡ 466가구 △115㎡ 90가구를 비롯해, △68~95



㎡의 T-HOUSE 118가구 △125㎡~140㎡ P-HOUSE 12가구 등 중소형부터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그랑시티아이 2차'는 안산의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고잔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테다 주거·상업·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완성되면 향후 프

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나 일본 도쿄를 대표하는 롯폰기 힐즈처럼 지역의 시세와 트렌드를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안산은 최근 경기도 내 다른 지역과 달리 11·3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미분양이 희소하면 서도 최근 타 지역과 달리 대단지 입주 물량도 없어 주택시장의 안정성이 높다. 원스톱 교육특구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환경도 '그랑시티아이 2차'만의 장점이다.

모텔하우스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내 복합용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3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0년 하반기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워브

명문 학군·학원가 프리미엄 누리는 '목동 생활권'

현대산업개발은 두산건설과 손잡고 오는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11구 역에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워브를 분양한다.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워브는 지하 3층~지상 23층, 35개 동, 전용면적 52~101㎡ 총 3045가구 규모다. 이 중 임대와 조합원 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52~84㎡, 113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목동생활권과 가깝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춰 입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대중교통은 인근의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어 영등포, 여



의도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간편하다.

상권과 생활 편의시설도 인접해 다양한 인프라를 누리기에 용이하다. 신정네거리역 인근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이마트·홈플러스·행복한백화점·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유포렉스 등 목동의 다양한 편

의·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초·중·고교를 아우르는 우수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내에 신남초교가 위치해 있으며, 도로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교·지향초교·감서초교·감신중을 비롯해 신기초교·양동초교·양강중·양천고·금곡여고 등이 인근에 밀집해 있다. 이와 함께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주변의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조성된 쾌적한 주거환경도 보장된다. 단지 남쪽으로 계남근린공원이 위치해 있고, 일부 가구에서는 조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넓은들공원, 힐링생태공원, 오솔길실버공원, 한울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두산건설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

청수 행정타운·산업단지로 출퇴근 시간 절약 장점

두산건설은 충남 천안시 청당동 일대에 들어서는 '행정타운 두산위브 더 파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6층, 15개 동 1105가구 규모다. KTX천안아산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이 가깝다. 2019년 천안~평택을 잇는 민자고속도로가 조기 착공될 예정이며, 2022년 개통 예정인 천안~당진 고속도로와 제2경부고속도로의 건설도 앞두고 있다.

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CGV, 천안박물관 등의 편의시설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고, 청당초, 가운초, 천안여고, 청수고 등의 학교 시설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선문대



천안캠퍼스와 청수지구 학원가 등이 도보권에 있다.

인근에는 청수행정타운과 산업단지가 위치한다. 청수행정타운은 천안시가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해 거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완료 단계에 이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세무서, 천안우체국, 국민연금관리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도시가스, 대한지적공사 등의 업무시설이 입주를 완료했다. 또 범원·검찰청 이전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산업단지로는 풍세산업단지와 제5일반산단지가 최근 분양을 마무리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용 산업단지인 'LG생활건강 퓨처산업단지'(39만 3288㎡)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단지 바로 옆에 축구장, 농구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천안생활체육공원이 있고, 천안삼거리공원, 청수호수공원 등 공원시설도 주변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53-1번지에 마련돼 있다.

대림산업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70도 파노라마 평면 창호...“한강 조망 예술이네”

대림산업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독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3구역에 복합주거문화단지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6월 분양한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로 구성된 복합주거문화단지다. 주거 2개 동과 디아트센터, 리플레이스, 디타워로 이뤄진다. 주거는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 한강변은 신흥 고급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는 지역이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를 비롯해 독심4구역도 개발 채비에 나서며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와 함께 성수동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바꾸



는 초고층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어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 분당선 서울숲역이 단지 바로 접해 있으며, 성수대교, 영동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서울 도심과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

이 편리하다.

차별화된 설계도 특징이다. 대림산업은 '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 3번으로 창이 나 있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난 270도 파노라마 평면을 적용한다. 여기에 창문 프레임이 없앤 아트프레임을 설계에 도입해 조망을 극대화했다. 천장 높이도 기존 아파트(2.3m)보다 높은 2.9~3.3m로 설계해 한층 풍부한 개방감과 일조량을 제공한다.

이외에 지진 진도 9.0을 견디는 내진설계와 음성인식제어스마트홈(IoT) 서비스 등 최첨단 시스템도 적용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사거리 인근(신사동 631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

국내 최대 광교호수공원 코앞... 마트·병원도 인접

한화건설은 경기 광교신도시 일반상업용지 6-3블록(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부지)에 최고급 주거시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을 분양 중이다. 지난 달 17~18일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평균 86.7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현재는 일부 잔여물량만 남아 있는 상태다.

'광교 컨벤션 꿈에그린'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7층, 3개 동, 전용면적 84~175㎡ 총 759가구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84㎡ 210가구 △84D㎡ 42가구 △84E㎡ 42가구 △175㎡(먼트하우스) 3가구로 구성돼 있다. 전 가구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하고,



전장고를 2.5m로 설계하는 등 광교신도시 내 최고급 주거단지로 선보인다.

이 단지 내에는 갤러리아백화점을 비롯해 아쿠아리움, 호텔, 컨벤션센터 등이 신설돼 원스톱 생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또 광교신도시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약 200만㎡)의 광교호수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

색공원과 역사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교통환경 또한 편리하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버스환승센터가 단지 반경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교신도시와 광역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자가용을 이용해 강남지역 30분, 판교신도시 15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

롯데아울렛과 아비뉴프랑, 이마트, 아주대병원 등이 모두 반경 1Km 내에 있어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쌍용건설 밀양 쌍용 예가 더 퍼스트

스마트 홈네트워크... 모든 가구에 2m 광폭 발코니

쌍용건설은 이달 말 경남 밀양시 내이동 378-1번지 일대에서 '밀양 쌍용 예가 더 퍼스트(The First)' 46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3㎡A형 137가구 △73㎡B형 152가구 △84㎡ 179가구 등 3개 타입 총 468가구다.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규모다. 채광을 극대화하기 위해 4베이 판상형(73㎡A형, 84㎡)과 3베이 타워형(73㎡B형) 평면으로 공급된다.

'밀양 쌍용 예가 더 퍼스트'는 그간 쌍용건설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밀양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첨단 시설과 인프라 조성이 눈에 띈다. 먼저 밀양 최초로 전 가구에 약 2m 테라스형 광폭 발코니가 제공된다. 가구마다 지급한 스마트 패드로 홈네트워크를 제어



하는 스마트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일체형 스위치, 스마트 키친 시스템 등의 첨단시스템도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 밀양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했다. 모든 동(棟)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 자전거보관소, 미니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조성한 것도 특징이다.

생활 인프라도 뛰어나다. 밀양시청, 법원, 검찰청 등이 1km 이내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타임마트, 공설운동장 등도 가깝다. 2020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가 내이동에 건립되고,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밀양시외터미널과 KTX 밀양역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 있다.

단지와 인접해 2020년까지 나노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주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밀양제대농공단지, 사포일반산단지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내이 3지구 개발까지 계획돼 있다.

호반건설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선호도 높은 84㎡에 남향 배치... 汎강남권 입지

호반건설은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S2블록에 짓는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의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3층~지상 14층, 19개 동 총 768가구 규모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공급되는데, 타입 가구 수는 △84㎡A형 685가구 △84㎡B형 83가구다.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56만9201㎡에 조성되는 공공택지로 강남 세곡, 서초 내곡지구는 물론, 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범(汎)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다.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간 고



속화도로를 이용하면 강남권과 판교 등의 이동이 편리하다. 고등지구에선 내년 상반기까지 민간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왕남초교와 유치원이 인접해 있고, 공원 용지와 상적전도 가깝게 자리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하고, 4베이(Bay) 판상형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맞춤형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주부의 동선을 고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고,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안방 워크인 클로셋 등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키즈 클럽, 주민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60번지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純正 탈 쓴 ‘짜퉁’ 車부품, 운전자 안전 위협”

HYUNDAI MOBIS
현대모비스, 중국 불법 업체 69곳 적발
국내 유입 우려도... 꼼꼼한 확인 필요



현대모비스 관계자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 자동차 수리 업체에서 현지 공인과 함께 짜퉁 부품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시장에 ‘짜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검은 시장이 형성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도, 러시아, 중동 지역의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된 짜퉁 부품 규모는 100억 원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36억 원으로 가장 많고 러시아 29억 원, 중동 25억 원 순이다. 이들 국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반면, 최근 완성차 판매가 늘면서 자동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현지법인

과 10차례 가짜 부품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유통업체 69개소를 적발했다”며 “최근엔 베트남에서도 가짜 부품 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과 업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짜퉁 유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인접국들의 검은 시장 규모가 날이 커지고 있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실제로 2013년 저가의 중국산 엔진밸브 등 200여종의 위조 부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해외로 재판매됐고, 2012년엔 재생 에어백을 정상 제품인 양 속여 판 공업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 같은 짜퉁 부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위조 부품은 취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차량 성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오류 발생 시 보증을 받을 수도 없다.

2020년까지 세계 일등제품 20개로 확대

금호석유화학
합성고무 등 차세대 성장사업 연구 매진
작년 개발 에너지소재 소립경 올해 상용화

사업 부문의 연구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전 대학연구단에 위치한 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에서는 올해 타이어 소재를 중심으로 고기능성 합성고무인 4세대 SBR(Solution Styrene Butadiene Rubber)의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앙연구소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독자적인 제조 특허를 가지고 있는 단열 소재 흑색 EPS ‘에너지포’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에너지포는 ‘스티로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백색 EPS 소재의 특성과 강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흑연 소재를 첨가해 복사열 흡수 효율을 높여 기존 백색 EPS보다 약 20% 향상된 단열성을 지닌



금호석유화학 아산전자소재연구소 연구원들이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호석유화학

다. 금호석유화학은 작년 1mm 이하의 에너지포 소립경 제조 기술 개발에 성공해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막바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실내 생활 많은 직장인 위한 ‘최적의 비타민’

녹십자
육체피로·체력저하 개선 ‘비맥스 액티브’
항산화 기능·노화방지 돕는 셀레늄 함유

요한 각종 필수 성분이 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비타민의 경우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등 인체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반드시 음식이나 비타민제를 통해 보충해야 한다. 녹십자의 ‘비맥스 액티브’는 활성비타민 4종과 비타민C 등 10여종의 비타민이 최적 섭취량(Optimal Daily Intakes) 기준에 따라 함유돼 육체피로, 체력저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고효율 기능성 비타민제다. 또한 구내염이나 헛바



늘 완화와 더불어 신경통, 근육통에도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비맥스 액티브’에는 칼슘과 인의 체내 흡수를 돕는 비타민D가 1일 최대용량으로 포함돼 있으며 면역력 강화와 비타민 B군의 대사를 촉진하는 아연을 비롯해 항산화 기능 및 노화방지 작용을 돕는 셀레늄 등도 함유돼 있다.

‘씩’ 긁었다면... 알뜰하게 챙기셨나요

Standard Chartered SC 제일은행
할인·적립 한번에 ‘이마트360신용카드’
포인트로 마일리지 교환 ‘시그마’... 추천



정검다리 연휴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들어 있는 5월에 많은 지출이 있었다면 6월부터는 다시 한번 좀 더 똑똑한 소비를 위해 고민해 봐야 할 때다. 24일 SC제일은행은 실속을 중시하는 마트 쇼핑객에게 할인과 적립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이마트360신용카드’를 추천했다. 2015년 SC제일은행과 이마트 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출시된 이마트360신용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은행서비스와 이마트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9월 30일까지 이마트, SSG.COM(이마트몰·신세계몰), 트레이더스에서 1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원 청구 할인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이벤트와 별개로 이마트·이마트몰·트레이더스 이용 금액의 5%,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용 금액의 3%, 주유·대중교통·이동통신요금·해외 사용 금액의 2%가 SC제일은행 360 리워드 포인트로 특별 적립된다. 일반 가맹점에서도 이용 금액의 0.5% 적립 혜택이 있다.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한다면 포인트 적립에 감정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SC제일은행은 온라인 구매, 해외 사용, 병원 등에서 결제 시 1.5% 무제한 적립이 가능한 ‘SC제일은행 시그마카드’를 권유했다. 시그마카드는 국내외 온라인 구매, 모든 병원, 해외 사용 분에 대해 한도 없이 1.5%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일반 가맹점에서도 1% 적립이 된다. 적립된 시그마카드 포인트는 SC제일은행 리워드 포인트로 통합돼 사용할 수 있다.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백화점상품권으로도 교환 가능하다. 시그마카드의 해외여행 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도 눈여겨 볼 만하다. 환전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은 물론 해외 이용 시 해외이용수수료(0.35%)도 면제된다. 또 전 세계 6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 어리티 패스(Priority Pass)’ 카드가 발급된다.

변액보험 ‘MVP펀드’ 순자산 6000억 돌파

MIRAE ASSET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변액보험 ‘MVP펀드’의 순자산이 지난달에 6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4월 출시한 지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MVP펀드’는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하는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로, 고객의 안정적 수익을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부합하는 분기별 펀드 선택의 비중을 담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 전문가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분기별로 자산을 재구성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변액보험이 계약자 스스로 펀드를 선택하는 소극적 운용 방식을 추구한 것과는 다른 구성이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자산배분위원회에서 수립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반영해 분기 단위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

이드라인을 그대로 구현한 MVP펀드는 주식 비율에 따라 MVP30, MVP50, MVP60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식과 채권 비율이 약 6대 4로 구성된 글로벌 MVP60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적절한 펀드 변경이 수익률 관리의 중요한 변수인데 기존 펀드는 그 부담을 고객이 감당해야 했지만, MVP펀드는 전문가 집단의 1년에 4회 리밸런싱 하는 점에서 고객의 부담을 덜어준다”며 “이 점이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의 경쟁력으로, 고객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어떤 물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오늘도 수소수하세요”
수소샘 디스펜스 디럭스 3.5

SOLCO
백세건강 솔고바이오

깨끗한 물과 수소의 만남,
내 몸을 웃게 하는 차원이 다른 수소수를 경험하세요!
메디컬 전문기업 솔고바이오만의 특허 받은 기술력과 6중 티타늄 백금 시스템으로 풍부한 수소용존의 수소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
6중 티타늄백금 전기분해 시스템은 물(H₂O)에서 산소(O₂)와 수소(H₂)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분리하여 수소를 물분자 사이에 강력하게 분산, 용존시키는 솔고 수소수 생성기만의 특허 기술입니다.

- 1. 최소 1,000ppb 이상 높은 수소용존 수치
- 2. 수소용존시간이 오래 유지
- 3. 온도변화에 따른 높은 수소용존량 유지

워터가이드 장착기능 | 친환경 트리아탄 소재 | 본체 360° 회전기능

• 렌탈가격 : ₩23,900X39개월 • 상담 | 문의 1522-9731

중소 협력사와 소통강화 '힐링캠프' 연다

24-25일 부여리조트... 인문학 강의 등
중소 상생활동 '드림플라자' 3년째 운영



롯데백화점이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힐링캠프를 진행한다. 유통업계의 불황과 위기가 지속될수록 중소기업과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로 4회째인 힐링캠프를 24-25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진행한다. 이 행사에는 롯데백화점 잡화, 여성, 남성, 리빙, 식품 관련 중소기업 영업담당자 50명과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영업본부 담당자 10명이 참석한다. 일정 동안 롯데백화점은 인문학, 소통, 트렌드, 영업-마케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강의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015년 제2회 롯데백화점-중소파트너사 힐링캠프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백화점

힐링캠프 1일 차에는 베리타스 골프아카데미 김민철 원장이 '골프를 통해 배우는 쓸모있는 인문학'을 주제로 강의하고 2일 차에는 '저성장시대 상품 기획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공주대 최나

삼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다양한 중소기업 상생 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 파트너사 전용 판매관인 '드림플라자'를 선보이고 있다. 드림

플라자는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를 선별해 국내외에서 편집매장 형태로 운영된다. 롯데백화점이 드림플라자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매사원 인건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외 구매상담회'도 진행해 왔다. 국내 경기불황이 장기화하자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사를 위해 롯데백화점과 중소기업협력재단이 협업체 관련 비용을 지원해왔다. 2016년 3월에 진행한 해외 구매상담회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는 백화점, 홈쇼핑 등 유통 채널의 현지 바이어를 국가별로 100여 명씩 초대하고 중소기업과 일대일 미팅 자리를 마련해 총 240건의 구매 상담 결실을 보기도 했다.



땀 빠르게 말라 쾌적한 기능성 '비프레시' 라인

냉감 소재 '아쿠아엑스' 피부 열 흡수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이 자리잡은 데다 아웃도어 시장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물론 도심에서도 자주 입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불고 있는 '에슬레저' 트렌드의 영향으로 스포츠 상황과 일상에서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멀티유즈(multi-use) 제품들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L.F 라푸마는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언제 어디서나 땀이 있게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제품을 내놓고 있다. 유난히 더운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을 겨냥해 '비프레시(B-Fresh)' 기능성 라인을 반소매, 긴소매, 민소매 티셔츠, 팬츠, 신발 등 다양한 스타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비프레시 라인은 땀을 빠르게 날리는 속건성으로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하며 초극세사와 특수 냉감 원단을 적용해 청량감을 전달한다.

비프레시 라인에 적용된 냉감 소재가 바로 '아쿠아엑스(aqua-X)'다. 아쿠아엑스는 독특한 단면에 함유된 특수미네랄이 피부로부터 열을 흡수해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원리로, 냉감 기능은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과 속건성까지 갖췄다. 이외에도 우수한 내구성, 경량성, 신축성을 자랑해 가벼운 야외활동과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다.

라푸마의 에어벤트(AIR-VENT) 트레킹화는 방수 투습 기능이 우수한 고어텍스 소재에 신발 옆 부분에 미세한 숨구멍을 만드는 '고어텍스 서라운드 사이드솔 오프닝'이라는 최신 기술을 적용해 360도 전 방향 통기 기능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땀이 많은 더운 날에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신발의 인솔(창)에 사용된 오소라이트(Ortholite) 기능은 악취 억제에 탁월해 장시간 산행에도 쾌적한 발걸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학생 국토대장정' 19년째 진행



동아제약은 사회공헌 활동뿐 아니라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제약의 가장 널리 알려진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박카스와 함께하는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이다. 1998년 시작된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은 남녀 각 72명씩 총 144명의 대학생이 20박 21일 동안 직접 대한민국 땅을 두 발로 걸어 완주하는 행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을 이기는 강한 정신력을 기르고 남에 대한 배려와 동료애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매 행사마다 참가대원들은 20박 21일 동안 500km가 넘는 길을 완주한다.

또 2015년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염색 봉사 행사인 '비젠 어게인(Bigen Again)'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비젠 어게인 캠페인은 염색을 통해 어르신들의 젊음을 되찾아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동아제약 염색약 비젠 브랜드 제품으로 어르신들에게 직접 염색을 해준다.

동아제약은 지역사회 발전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나눔바자회도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에서는 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구강청결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상품들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행사를 통한 수익금은 동대문구 저소득층 가정 및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전액 기부한다.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관 형성과 미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어린이가그린치과 직업 체험 행사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농심 '카레라이스 쌀면'으로 근사한 한끼식사

라면도 요리가 되는 세상이다. 농심이 최근 출시한 '카레라이스 쌀면'은 카레와 쌀면을 접목한 신개념의 제품으로, 카레전문점에서 즐길 수 있는 진하고 구수한 카레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렸다. 여기에 두툽한 쌀면을 함께 담아 근사한 요리로 완성했다. 카레 파스타라고 불려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다.



농심은 푸짐한 카레 요리를 위해 제품 1봉지당 카레 분말스프(36.4g)를 기존 비빔타임류 제품(18g) 대비 2배 이상 넉넉하게 넣었다. 이는 카레전문점에서 카레라이스를 1인분 주문했을 때 통상적으로 나오는 카레소스 양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다.

농심은 라면이 이제 한끼 식사, 미식(美食)으로도 충분히 할 만큼 위상이 올라갔다고 판단, 신개념 라면 개발에 착수했다. 외식메뉴로 인기 있고 가정 내에서도 즐겨 먹는 카레를 타깃으로 정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건강에도 좋은 카레에 농심의 제조기술을 접목하면 기존에는 맛볼 수 없던 카레라이스 맛 그대로의 라면 신제품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1년여의 연구 기간을 거쳤다.

큼직한 감자와 고기 고명, 식감을 잘 살린 야채 건더기도 특징이다. 굵게 썬 감자는 진공프라이 공법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렸으며 닭가슴살, 소고기로 만든 고기 고명과 당근, 완두콩, 청경채 등의 야채 건더기는 먹음직스러운 카레 요리를 완성해 주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이와 함께 면을 농심 제품 가운데 가장 넓적하게 만들었다.

맛·건강 담은 '가정간편식'... 볶음밥 이어 덮밥까지



즉석요리의 원조기업인 오뚜기가 1인 가구와 혼밥족의 증가 등에 힘입어 가정간편식(HMR) 감자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대로짜장'을 출시했다.

1969년 설립된 종합식품기업 오뚜기는 1981년 국내 첫 즉석요리인 '3분카레'로 HMR 시장의 문을 최초로 열었다. 36년이 지난 현재 HMR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뚜기도 즉석밥, 피자, 볶음밥 등 HMR 메뉴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오뚜기 HMR의 베스트 셀러 중 하나로는 사골곰탕이 꼽힌다. 사골곰탕 시장은 400억 원 규모의 국내 간편식 국물요리 시장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크다. 이 중 오뚜기는 시장 점유율 90% 수준이다. 최근에는 즉석밥이 집밥 못 지않게 한끼를 간편하게 즐기려는 욕구와 결합하면서 냉동밥, 컵밥, 국밥, 덮밥 등 복합밥 시장으로 옮겨졌다. 오뚜기는 지난해 '오뚜기 볶음밥'을 시작으로 김치잡지덮밥, 제육덮밥, 쇠고기미역국밥, 북어해장국밥 등 총 13종을 판매하고 있다.

1981년 '3분 카레'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건강 지향적 원료를 사용해 프리미엄급 '3분 백세카레'와 밥 위에 그대로 부어먹을 수 있어 더욱 간편한 '그대로카레, 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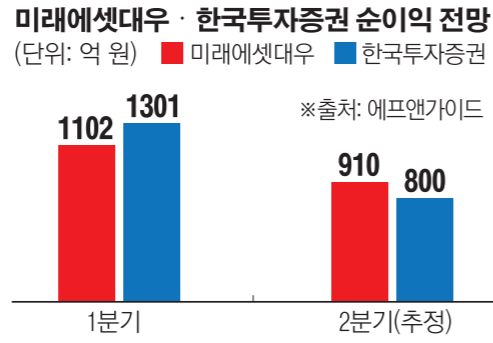
고급맛살 브랜드

2016 세계 골프랭킹 1위 / 리더야고



한국투자증권에 '순이익 1위' 내준 미래에셋대우 '초대형 IB' 자존심 되찾을까

1분기 1102억 흑자 전환 성공했지만
"6조 자기자본 비해 부족한 성적" 평가
2분기 컨센서스 910억... 한투보다 높아



올 1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호실적으로 한박웃음을 지었던 증권업계가 2분기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특히 업계 공룡으로 꼽히는 미래에셋대우가 1위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증권업계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1분기 컨센서스를 30% 가까이 상회한 1102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업계 5위 한국투자증권이 순이익 1301억 원을 달성하면서 실적 1위 자리를 내줬다. 합병 후 첫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에셋대우는 전 분기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약 6조6000억 원 규모인 자기자본에 비해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순이익 1위를 기록한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에 강점을 보였던 리테일 부문을 포함,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대체 투자 확대를 통한 수익원 다변화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

자본이익률(ROE)도 업계 최고 수준인 12.6%를 기록했다.

2분기는 전 분기 호실적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추가연계증권(ELS) 조기상환 규모가 감소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이익 규모가 1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세장에 힘입어 거래 대금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이 손실을 메울 열쇠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오는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440억 원) 대비 106.8% 증가한 수치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업계 1위인 만큼 증시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 업계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시대

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고은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초대형 IB는 시장 선점보다 투자처 발굴 능력이 중요한데, 미래에셋대우는 자산 관리(WM) 기반과 자기자본투자(PI) 능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800억 원대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배당금 108억 원, 펀드 평가이익 200억 원, 정책자산 매각 손익 160억 원 등 1분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의 한 축인 일회성 요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태다. 김지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시장이 실적을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거래 대금 추이에 따라 1000억 원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래에셋대우가 덩치에 걸맞은 성과로 경쟁사들을 따돌리려면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방대한 저점수와 고객 수, 뛰어난 자본력 등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중장기적인 재평가를 위해서는 꾸준한 실적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주담과 Q&A / 국동

기업의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식담당자(주담)의 입에서 시작합니다. 본지는 독자들에게 자본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주담과 Q&A' 코너를 연재합니다.

印尼 신규 생산라인 본격 가동 "올 상반기 사상 최대실적 전망"

다음달부터 생산라인 15곳 늘려 바탕 지역에 신공장 건설 추진도

미국 경기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의류 수출업체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100% 미국시장 수출 OEM 기업인 국동은 나이카(Nike)·칼하트 등 20여 개 브랜드에 의류를 생산·납품하는 곳이다. 올해 생산량 증설을 통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국동에 대해 후문자를 물었다.

Q. 지난 1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했다.

A. "1분기 실적 감소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작년 1분기 이례적인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환율 영향과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올 1분기 실적은 긍정적이다."

Q. 올해 자체 생산량 확대 계획은.

A. "인도네시아 스마랑 공장의 생산라인은 현재 33개다. 오는 6월부터 신규 증설된 15개 라인 본격 가동되면 전체 생산라인이 48개로 늘어난다. 또, 인도네시아 바탐지역의 신공장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Q. 생산라인 확대에 따른 효과는.

A. "그동안 생산라인을 풀가동하는 상황이어서 추가 물량을 받을 여력이 없었다. 신규 라인 증설에 따른 기존 바이어들의 추가 오더 및 신규 바이어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Q. 글로벌 3위 스포츠 브랜드인 언더아머가 최근 공장 실사를 진행했다던데.

A. "최근 언더아머가 약 3일간 인도네시아 공장 실사를 진행했다. 스마랑 공장 신규라인 증설로 2018년 가을/겨울 시즌 상품부터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국동의 매출 비중 1위는 워크웨어 브랜드 칼하트인데, 한국에서 워크웨어는 다소 생소하다.

A. "말 그대로 안전복, 작업복 혹은 기능성을 갖춘 전문 의류라고 보면 된다. 미국 워크웨어 대표 브랜드인 칼하트는 국내에서 반지도, 아이유, 태양 등 연예인이 입고 나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칼하트 납품 매출은 2005년 첫 오더 이후 매년 30%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Q. 올해 실적 전망은.

A. "작년의 경우 매출은 16%, 영업이익은 22% 증가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다음달 신규 라인 본격 가동에 따라 외형 성장과 수익성 향상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인도네시아 라마단 효과 등 매출 쏠림 현상으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성시종 기자 ssj@



Natural Aqua Gel Cure

전 세계 누적 판매수 5억 병
기적의 저 자극 각질제거 젤

큐어 네추럴 아쿠아 젤

성분의 91% 활성화수소수

성분의 91%는 활성화수소수로 이루어져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고, 항산화작용이 있습니다

무향료, 무착색, 무방부제

민감한 피부를 위해 안과 의사가 수술시 안구를 보호하는 보호액을 사용하였습니다

피부 턴 오버 주기 원활

피부표면의 불필요한 노폐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보다 젊고 탄력있게 해줍니다

큐어 워터트리트먼트 스킨크림

75% 이상의 활성수소수로 만들어진 유니크하고 특별한 수분크림으로 피부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어 피부를 젊고 탄력있게, 맑게 해줍니다

큐어 네추럴 아쿠아 젤과 함께 사용하시면 극대화된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주 2-3회 수분팩으로 사용하시면 피부보습에 더욱 좋습니다

촉촉한 피부

아기 피부와 같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피부 턴 UP 효과

얼굴이 환해지는 효과와 함께 화장이 잘 먹여 하루의 기분을 상쾌하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지나친 피지분비 조절

피부에 지나친 피지분비를 해주어 여드름, 민감성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WWW.CUREKOREA.CO.KR

코스피 2300시대... 증권株 함께 웃다

증권지수 13.31포인트 오른 2025.51 마감
외인 투자자 145억 순매수 상승세 이끌어
SK·대신·HMC투자·삼성증권 등 신고가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2300선 고지를 돌파했다. 증권주도 증시 호황에 따른 반사수혜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를 나타냈다.

23일 코스피 증권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31포인트(0.66%) 오른 2025.51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장중 최고 1% 중반대 오름세를 나타내며 2041.61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증권업종의 강세를 이끈 투자 주체는 외국인으로 총 14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138억 원어치를 내다팔았고, 기관은 치열한 수급 공방 끝에 순매수 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연기금은 46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SK증권(4.67%)으로 저평가 매력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뿐만 아니라 대신증권(2.33%)과 HMC투자증

권(1.77%), 삼성증권(0.65%) 등이 일제히 신고가 랠리에 합류했다. 이외에도 한화투자증권(2.96%), 유진투자증권(1.51%), 골든브릿지증권(1.46%), 한양증권(1.39%), 한화투자증권(1.04%), 유안타증권(1.03%), 한양증권(0.80%), 신영증권(0.58%) 등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

증권업종의 강세에는 최근 코스피의 상승 랠리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피지수는 7.71포인트(0.33%) 오른 2311.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2326.57을 기록해 지난 10일(2323.22) 이후 9거래일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증권주와 금융주, 보험주 등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 증시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주요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3367만 7000주, 5조5234억3700만 원을 기록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코스피지수가 작년 말(12월 29일)의 3조9199억9000만 원과 비교할 때, 1조600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차명연 기자 blooming@

기업 PR

한국거래소 '아시아 최고 지수사업자' 도약 시동



대만증권거래소와 IT섹터·고매당지수 개발
ETP 상장지역 확대·해외 파생시장 진출 계획

한국거래소가 아시아 최고의 지수사업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거래소는 최근 '아시아 톱(TOP) 지수사업자'라는 비전을 세우고, 인덱스 사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지수개발 △해외진출 확대 △IT인프라 확충 △신성장전략 수립 등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S&P와 공동으로 코스피200 회사체제지수 개발을 위한 연구는 물론 금현물지수와 같이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수단 제공을 위한 상품지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만증권거래소(TWSE)와 양국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IT섹터지수와 고매당지수도 개발한다. 국내거래소가 해외거래소와 공동지수를 함께 산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홍콩, 대만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된 우리지수

기반의 상장지수펀드(ETP) 상장지역을 10개국으로 확대, 해외 주요 파생상품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인 선호하는 특화지수 개발을 통해 해외 펀드용 벤치마크지수 시장과 해외 구조화 상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적시·대량 생산과 안정적 지수산출을 위해 개발부터 산출·관리를 통합 수행하는 지수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인트벤처(JV) 설립,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중장기 성장 전략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최근 관련 조직을 확대·정비했다. 기존 2개 팀에서 수행하던 인덱스 사업을 부서 단위로 확대·개편했다. 인덱스 사업부 내에는 신설된 지수개발팀을 비롯해 관리 및 마케팅 등 3개의 기능별로 전문화된 팀을 구성했다.

‘호텔신라’ 회사채 수요예측 선방했지만..

2000억 규모 발행 6300억 매수 주문 ‘3배 오버부킹’ 신용등급 전망 ‘하향’ 부담감...조달금리는 올라갈듯

호텔신라(AA)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예정금액의 3배에 달하는 유효수요를 확보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서 따르면 호텔신라는 2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전날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63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인수단에 참여했다. 1000억 원씩 발행할 예정인 3년물은 4200억 원, 5년물은 2100

억 원 등의 수요를 확보했다. 조달된 자금은 홍콩 채략국 공항 투자와 단기자금 대출 상환, 면세상품 구매 대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물량은 채웠지만, 금리는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증액 없이 예정대로 발행할 경우 3년물은 개별 민평금리보다 11bp, 5년물은 15bp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AA등급 우량 채권의 조달금리가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등급 전망이 하향될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는



확대와 경쟁 심화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영업환경이 나빠진 점,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 사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호텔신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다. 더불어 고객 유치비용 상승, 임차료 부담이 높아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점 등이 등급 전망 하락에 영향을 줬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점 등은 주가에 반영됐으나 장기 투자물인 회사채 투자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면서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로 주문을 넣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아이템 거래 뛰어난 ‘파티게임즈’ 비엔엠홀딩스 지분 30% 또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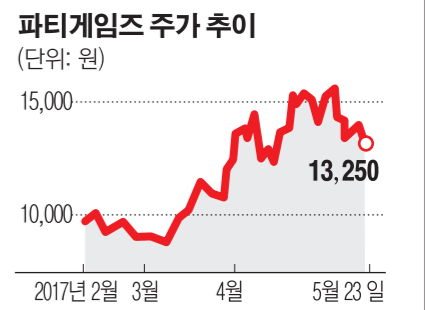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파티게임즈가 게임아이템 거래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며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내 아이템 거래시장 공략에 나선다.

파티게임즈는 비엔엠홀딩스 지분 30.49%(60만9737주)를 442억 원에 인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6일에도 파티게임즈는 비엔엠홀딩스 지분 6.83%(13만6699주)를 99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이로써 파티게임즈는 두 차례에 걸쳐 비엔엠홀딩스 지분 37.32%(74만6436주)를 541억 원에 확보하게 됐다.

비엔엠홀딩스는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자회사인 아이테메이와 아이테메니아가 통해 급성장하는 국내 게임 아이템 시장에서 매년 영업이익 150억 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파티게임즈는 이번 지분 인수로 게임 개발부터 퍼블리싱, 아이템 거래를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됐다. 회사 측은 하반기 게임업계의 최대 기대작 ‘리니지M’이 1조5000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달 21일 출시 예정인 리니지M은 사전 예약자만 4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모바일 게임 사전 예약자 중 최대 기록이다.

실적 턴어라운드 달성도 기대된다. 파티게임즈는 연결실적으로 지



**국내아이템 시장의 95% 차지
매년 영업이익 150억 이상 알짜
99억 이어 442억여치 사들여
74만주 확보...지분 37.32%**

분법에 따라 비엔엠홀딩스에서 연간 200여억 원 이상의 매출액과 120여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가져와 조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주주인 모다와 함께 비엔엠홀딩스의 지분을 91% 이상을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확고히 하고, 사업개편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연간 30억 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파티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지분 인수는 독점적인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매출 확대와 실적 개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드라마 ‘비밀의 숲’ PPL 문의 쇄도...‘씨그널엔터’ 굿 시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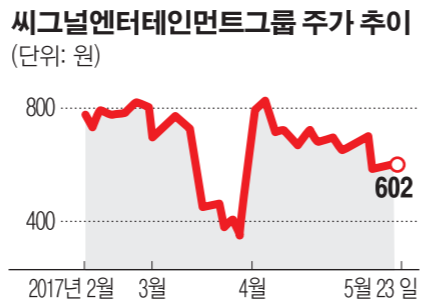


‘냉장고 부탁해’ 등 예능 제작사
최근 드라마 ‘피고인’ 성공 테워
수익확대·영토확장 두तो끼잡기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자사가 제작 중인 tvN 새 토일드라마 ‘비밀의 숲’이 간접광고(PPL)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비밀의 숲’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 황시목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상을 파헤치는 내부 비밀 추적 드라마다.

특히 티저영상이나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들이 공개될 때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조승우, 배우나의 브라운관 복귀작인데다 연기력을 인정받은 두 사람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무조건 봐야 하는 드라마’로 불리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게 씨그널 측의 설명이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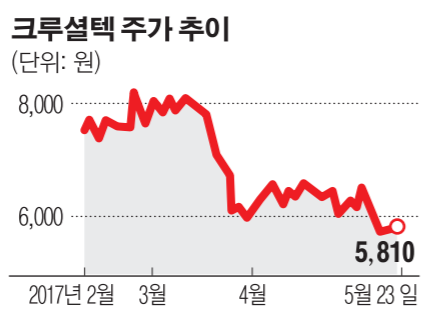
크루셜텍 “1주당 0.5주 배정 무상증자 예정대로”

내달 중순부터 무증 절차 착수
유상증자 따른 주주 불안 해소

모바일 생체인식 솔루션 전문업체 크루셜텍이 기존에 공시한 대로 내달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6월 13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6월 29일이다.

크루셜텍은 3월 27일 재무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 586억 원 규모의 유·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현재 유상증자 제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청약이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부터 무상증자에도 착수한다.

회사 측은 “6월 9일까지 크루셜텍 주식을 매입해 6월 13일 기준으로 주주명



부에 등재된 전체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5주의 비율로 신주를 무상으로 배정한다”며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의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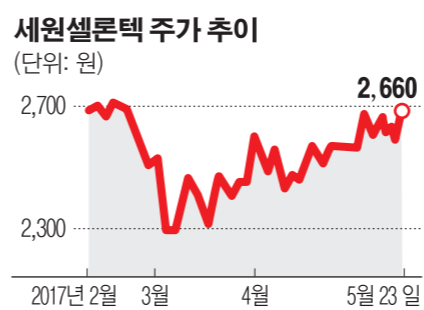
100주를 보유한 주주가 무상증자에만 참여할 경우 총 150주를 갖게 되고, 유증 청약에 이어 무증까지 받으면 최종 204주를 보유하게 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번 무상증자는 주주들의 실례를 통해 유상증자에 대한 주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다.

무상증자는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주주들에게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크루셜텍 관계자는 “유·무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운영자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시장 및 거래처의 자금운영 우려를 불식시키고, 디스플레이 일체형 지문인식 솔루션(Display Fingerprint Solution), 위조지문 방지 솔루션(Anti-Spoof Solution) 등 신성장 동력에 투자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모든 경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리발 추출 바이오콜라겐 세원셀론텍, 美 FDA 등재

세원셀론텍이 축산 부산물인 오리발에서 추출한 바이오콜라겐을 원료 의약품으로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세원셀론텍은 오리발 유래 바이오콜라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DMF(원료의약품등록제도)에 등재(등재명·ATELOCOLLAGEN-D.F.)되었고, 이로써 글로벌 상용화 확대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세원셀론텍의 원료 의약품이 미국 FDA의 DMF 등재에 성공한 것은 액상 및 파우더 제형의 바이오콜라겐에 이번이 세 번째 성과다.

미국 FDA의 DMF는 의약품 원료 선택·구매 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통용되고 있다. 세원셀론텍은 오리발 유래 바이오콜라겐이 미국 FDA의 DMF에 등재됨에 따라 미국 내 유통 기반을 다진 것은 물론, 조직재생 의료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콜라겐은 인공각막(스웨덴 린코케어 사) 및 조직보충제(미국 에테르노젠 사) 개발원료로 수출한 바 있으며, 세원셀론텍이 세계시장에 공급 중인 리젠그라프트(RegenGraft, 바이오콜라겐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체조직을 대체·보장하는 재생치료 재료 품목군) 등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성시중 기자 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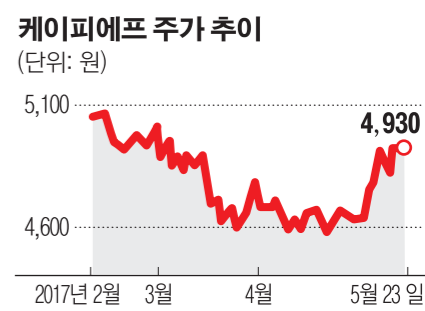
‘케이피에프’ 건설용 파스너, 유럽 공략 탄력

폴란드·이탈리아 유통사와 협약

파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기업 케이피에프가 폴란드 및 이탈리아의 파스너 유통업체들과 건설용 파스너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체결식은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폴란드와 이탈리아 현지에서 진행됐으며, 두 기업은 ‘고품질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폴란드 및 이탈리아 시장의 견고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케이피에프가 양사에 공급하기로 한 건설용 파스너 제품은 현재까지 독일



및 이탈리아의 현지 제조업체들로부터 조달하던 고부가가치 제품들로, 케이피에프는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마케팅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왔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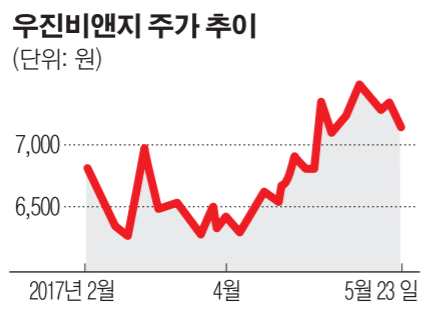
‘우진비엔지’ 양계백신 대량생산 기술 8억에 유럽 수출

불가리아 휴베파마사와 계약

동물약품 전문기업 우진비엔지가 불가리아 회사와 양계백신 대량 생산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

우진비엔지는 휴베파마(Huvepharma)와 2종의 백신 생산 공정 개발 및 대량생산 공정 개발 기술이전 계약을 64만 유로(약 8억 원)에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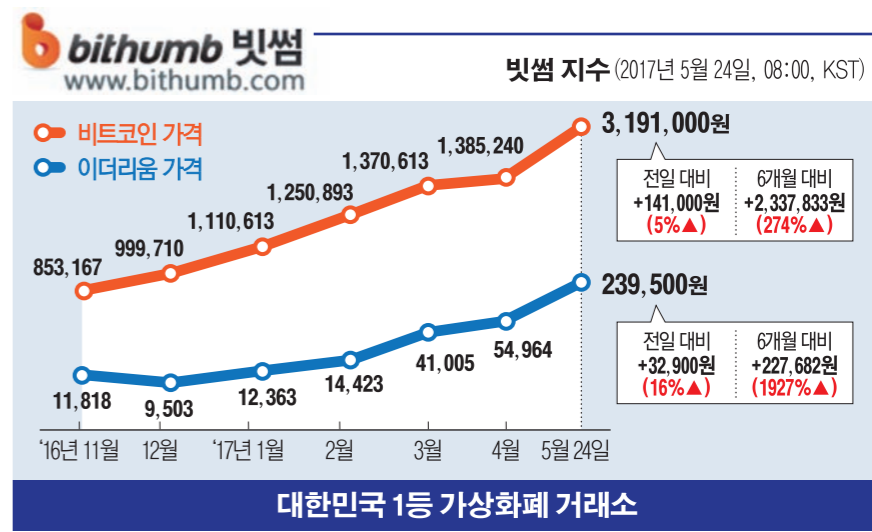
휴베파마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불가리아와 벨기에에 다수의 동물약품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해 동물약품 세계 13위 업체로 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 다양한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동물 질병 예방 추세에 맞춰 백신



사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우진비엔지는 휴베파마와 지난해 11월 백신 개발 기술력과 새로운 백신 제조 시설에 대한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백신산업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우진비엔지는 유럽 진출과 백신제조 기술이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권태성 기자 tskwon@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과 손잡고 출발합니다

국민의 꿈과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희망을 열어가는 미래의 대한민국,

그 출발을 KB금융그룹이 함께 하겠습니다.



KB 국민은행
KB 국민카드
KB 캐피탈
KB 저축은행

KB 증권
KB 자산운용
KB 인베스트먼트
KB 부동산신탁

KB 손해보험
KB 생명보험
KB 신용정보
KB 데이터시스템

